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
060-700-1080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9월 28일(음력 8월 25일) 수요일 (주간) 제 545 호

부처님의 10대 제자

광주에서 만난다

10월 5일부터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10대제자와 행복한 삶'

동구불교협 · 本社 공동 주최 … 동구 KT센터서

지혜제일 사리불에서 지계제일 우바리 존자까지 부처님 재세 당시 상수제자 10명이 빛고을 광주에 나툰다.

광주 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는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위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제자와의 만남'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10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센터 대강당에서 10회에 걸쳐 열리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부처님 상수제자들을 재조명하는 대중강좌. 따라서 불교신행 분야마다 새로운 수행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좌는 또한 사찰은 물론 광주시청 및 전남 도청 불자회, 불교운전자회, 교사불자회, 포교사단, 자비신행회 등 광주지역 신행단체가 함께 마련한 일반 대중을 위한 열린불교 강좌로 호남불교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처님 10대제자는 부처님 생존시 불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가려뽑은 10명의 제자들이다. 염화미소의 주인공 두타(頭陀)제일 가섭 존자를 비롯해 지혜(智慧)제일 사리불, 천안(天眼)제일 아나율, 신통(神通)제일 목건련, 해공(解空)제일 수보리, 설법(說法)제일 부루나, 다문(多聞)제일 아난다, 논의(論議)제일 가전연, 지계(持戒)제일 우바리, 밀행(密行)제일 라훌라 존자 등이다.

강의는 정무(안성 석남사 회주), 혜거(서울 금강선원장), 자광(문경 김룡사 회주), 현봉(前 송광사 주지), 호진(前 동국대 교수), 도법(선우도량 상임대표), 혜능(해인총림 율원장), 재연(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지운(동화사 강주), 미산(중앙승가대 교수) 스님 등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강사로 나서, 부처님 10대제자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고 토론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를 살피게 된다.

부처님 10대제자를 대신해 호남불자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강사스님들은 "단순한 불교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10대제자들의 수행과 일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장 지각 스님은 "이번 강좌는 호남지역의 불자뿐 아니라 불교를 접하지 못한 젊은층, 직장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불교 대중강좌로 포교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12월 7일 수계법회와 함께 회향한다. 문의 (062)234-2732 hompy.buddhapia.com/homepy/buddhaschool

이준엽 기자


미산 스님


정무 스님


현봉 스님


혜거 스님


자광 스님


지운 스님


호진 스님


재연 스님


도법 스님


혜능 스님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일정표 (장소: 동구 KT센터 대강당, 시간: 오후 7시)

날 짜(매주 수)	주 제	강 사
10월 5일	지혜제일 사리불 – 아제아제 바라아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12일	신통제일 목건련 – 참회! 새로워지는 삶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회주)
19일	두타제일 가섭 – 염화미소! 꽃을 드니 미소 짓다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
26일	해공제일 수보리 – 텅빈 충만! 공〈空〉	혜거 스님(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11월 2일	설법제일 부루나 – 함께 가는 진리의 길	자광 스님(前 직지사 주지)
9일	논의제일 가전연 – 세상을 향한 열린 대화! 자비	지운 스님(대구 동화사 강주)
16일	천안제일 아나율 –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
23일	밀행제일 라훌라 – 조고각하! 돌아보며 어울리는 삶	재연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30일	다문제일 아난다 – 여시아문! 이와 같이 들었다	도법 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
12월 7일	지계제일 우바리 –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 계율	혜능 스님(해인총림 율원장)

법장 대종사 조의금

생명나눔 · 승려노후복지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 조문 기간중 접수된 조의금 1억 5000여만원이 생명나눔운동기금과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기탁된다.

법장 대종사는 생전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며 법구기증을 서약하는 등 '생명나눔'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었다. 또 수행풍토 진작과 종단 안정을 위해서는 승려노후복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 동참에 솔선수범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49재가 열리는 10월 29일 조의금을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율장정신에서 본 종단의 제도'
법주 : 경성 스님(10월 1일 오후 3시)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새물 맞는 청계천에 연꽃 피다 10월 1일 서울 청계천의 새물 맞이 개막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소속 청소년 불자들이 맑고 깨끗한 연꽃세상을 염원하며 그린 그림타일 400여장이 청계천 황학교~비우당교 구간에 마련된 '참여와 화합의 벽'을 장식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전국 폐사지 투어콘서트 '출발~'

10월 16일 양주 회암사지서 산사음악회

폐사지보존법 제정이 추진되는 등 폐사지 복원과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폐사지 투어콘서트가 열린다.

첫 무대는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리는 '양주 회암사지 산사음악회-I Love Lost Temple 잊혀진 가람을 찾아 떠나는 노래여행'이다.

문화복지연대 · 양주사암연합회가 공동주관하는 회암사지 산사음악회는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 양주 회암사지 가설무대에서 열린다.

김성녀 교수(중앙대 한국음악과), 가수 정태춘 · 박은옥 등이 출연하며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도 공연된다.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도 감미로운 선율로 회암사지의 가을밤을 수놓는다. 특히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은 이날 연가곡 '회암사지 가는길'의 초연을 시작으로 투어때마다 계속 창작곡을 선보인다.

음악공연과 함께 '1폐사지 1지킴이' 발대식 등 폐사지 관련 행사도 진행된다. 다큐멘터리 회암사지 · 폐사지 사랑 캠페인 영상물 상영, 기금마련코너와 폐사지 사랑 회원 가입신청 코너 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이 결성한 폐사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역민과 불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추석 연휴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할'



그림 · 조태호

연수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0, 11면에서 만나세요)

감사드립니다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 大宗師 永訣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仁谷堂 法長 大宗師 宗團葬에 추모의 뜻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과 갈등을 해결하고 안녕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僧俗의 구분없이 동분서주하시던 仁谷堂 法長 大宗師의 圓寂은 불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도 큰 손실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슬픔과 상실을 있게 한 저희들의 무능과 잘못을 참회하며 종도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스님의 入寂은 우리들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가시는 길에 보이신 스님의 보살행자로서 최후 모습은 큰 가르침으로 남았으며, 우리 僧伽와 사회에 스님의 숭고한 뜻이 계승되게 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仁谷堂 法長 大宗師의 장례가 종도와 국민의 가슴 속에 남아 있도록 뜻 깊게 된 것은 장례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진실한 추모의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황 중에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신 여러분의 아량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感謝의 禮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永訣式場의 마지막 하늘을 장엄했던 아름다운 햇무리가 생명과 평화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의 갈등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스님의 遺志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스님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佛紀 2549年 9月 21日

仁谷堂 法長 大宗師 追慕薦 日程

구 분	장 소	일 시	연락처
초재	수덕사	9월 17일(음 8월 14일) 10:00	041-337-6565
2재	화계사	9월 24일(음 8월 21일) 10:00	02-903-3361
3재	해인사	10월 1일(음 8월 28일) 10:00	055-934-3000
4재	법룡사 (비구니회관)	10월 8일(음 9월 6일) 10:00	02-3411-8103
5재	조계사 (생명나눔실천본부)	10월 15일(음 9월 13일) 10:00	02-732-2183
6재	도선사	10월 22일(음 9월 20일) 10:00	02-993-3161
49재	조계사	10월 29일(음 9월 27일) 10:00	02-732-2183
100일재	수덕사	12월 19일(음 11월 18일) 10:00	041-337-6565

■문의 :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 02)2011-1701
수덕사 ☎ 041)337-6565 · 조계사 ☎ 02)732-2183,2115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 總務院長 權限代行 玄 杲
護 喪 / 中 央 宗 會 議 長 法 燈 合 掌
門 衆 代 表 雪 靖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선거 10월31일

'합의추대론' 모락모락

"고조된 이미지 살리자"설득력

"단독후보 나올수 있나"회의론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일이 10월 31일로 정해진 가운데 '합의 추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합의 추대론이 고개를 드는 배경은 최근 원적에 든 법장 스님의 법구 기증과 보험금의 승려노후복지기금화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불교위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결과, 총무원장을 추대하자는 의견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졌던 것에 기인한다.

합의 추대론을 내세우는 측은 "법장 스님 원적 후 사회 전반에서 불교의 이미지가 고조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자칫 선거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자충수를 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의 추대를 위한 움직임은 현실로도 나타났다. 중앙종회 종책모임 일승회와 화엄회를 주축으로 한 18곳(위임 2곳 포함) 교구본사주지들은 9월 20일 대전 유성에서 모임을 열고 '공명선거'와 '총무원장 합의 추대'에 합의한 뒤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 추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교구본사주지 등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 추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 선거법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합의 추대를 위해서는 단독 입후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문중과 계파간 사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20일 열린 교구본사 주지 모임에 쌍계사 고운사 금산사 월정사 관음사 은해사 주지가 참석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진단.

특히 정책 공조를 약속한 일승회와 화엄회뿐만 아니라 보림회나 금강회 모두 이해관계 따라 저울질하며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 향후 조계종의 '선거국면'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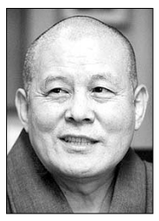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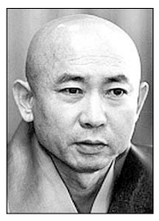
총무원장 선출 일정과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며, 선거인단 선출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각 교구 본사별로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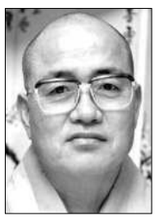
후보자 자격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다.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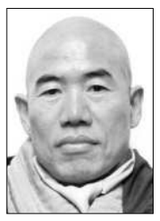

지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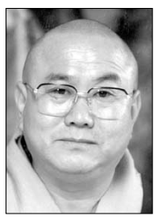

지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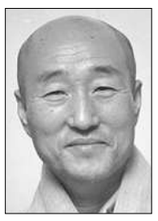

도영 스님


정련 스님


원택 스님


보선 스님


법타 스님


일면 스님


법등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선거 시작
자천 타천 후보들 바쁜걸음

말 아끼고 관망하는 듯 하지만…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법장 스님 원적 이후 차기 총무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후보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총무원장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수장'일뿐만 아니라 조계종의 행정 전반을 관장하는 자리.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현재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스님은 대략 10여명.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도영, 前 중앙종회의장 지하,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 중앙종회 부의장 원택, 대흥사회주 보선, 은해사주지 법타, 군종교구장 일면, 중앙종회 의장 법등 스님 등이 잠재적인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역대 총무원장 선거에서와같이 의외의 인물이 후보로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님들은 아직까지 말을 아끼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조계종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일승회와 화엄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관 스님은 만상좌 세민 스님(前 해인사 주지) 등이 추대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지관 스님의 핵심 측근은 "종도들이 추대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현행과 같이 선거를 통한 선출이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승회와 화엄회가 새 총무원장 선출을 추대제로 할 것을 합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종회 의장이면서 여권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법등 스님은 조심스런 반응이다. 법등 스님은 "법장 스님이 잘 가꿔온 텃밭에 씨를 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내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야당격인 금강회와 보림회 역시 9월23일 현재까지는 확실한 후보자를 세우지는 못한 듯 하다. 특히 불교중앙박물관과 동국대 문제로 일승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보림회는 더욱 몸을 낮추고 있다. 금강회를 이끌고 있는 보선 스님은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과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나보다는 더 좋은 스님이 나와서 종단발전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선 스님과 함께 금강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택 스님은 출마 자체를 강하게 부정했다. 스님은 "사형인 법전 스님이 현재 조계종 종정으로 계신 상황에서 출마는 말이 안 된다"며 "현재의 분위기를 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상황에 따라 원택 스님의 입장이 바뀔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타 스님도 조심스럽긴 마찬가지. 법타 스님은 "추대형식이 되고, 종도들이 뜻을 모아준다면 출마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월 23일 현재지하, 도영, 정련, 일면 스님 등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상중(喪中)이어서 스님들이 선거와 관련한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9월말~10월초 사이에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사실상 닻을 올린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물밑에서의 움직임은 이미 뜨거워지고 있다.

박봉영 · 강유신 · 조용수 · 유철주 기자

"중립선거 노력…부정땐 사법조치"

총무원장권한대행 현고 스님 담화문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9월 2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종무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법절차에 따라 차기 집행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고 스님은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종도들이 우려하는 선거과열과 부정한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법령 및 사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현고 스님은 "지금 우리사회는 불교를 주목하고 있다"며 "국민과 불자들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이때 과거와 같은 갈등이 재연되거나 부정적인 승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조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종도들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고 스님은 담화문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정황증거가 포착되면 종법령에 의한 조치뿐 아니라 사법적 조치를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고 스님은 이 외에도 "종무원의 선거중립을 분명히 천명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종무원의 선거 직접 개입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공정선거로 종단안정 유지

교구본사주지회의서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는 9월 23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로 결의했다.

통도사 화엄사 선운사 고운사 백양사 5개 교구본사를 제외한 19개 교구본사 주지와 군종교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들은 종단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총무원장 권한대행체제에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들은 승려노후복지와 카트리나 피해 성금 모금에 전 종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남동우 기자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구성

선거감시활동 돌입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전국의 소장파 스님들이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를 구성해 선거감시활동에 나섰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준비위원 금강 스님 외 19명, 이하 청정선거운동본부)는 9월 26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정선거운동본부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권선거 차단 및 청정한 선거문화풍토 정착의 전기를 마련하고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며 ▲권역별 종책설명회 개최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선거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청정선거 실현의 원칙 및 실천방안 제시 ▲후보자 청정선거 서약 ▲부정선거 감시, 신고 창구 개설 ▲종무원의 엄정 중립 촉구 및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청정선거운동본부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은 "조계종의 스님 모두에게 문호는 개방돼 있다"며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들도 조만간 선거감시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신령스런 삼신괘불님(국보298호)과 함께하는 천년의 산울림 갑사 대축제

개산대제 ·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 · 산사음악회

寺甲龍雞

창건 제1585주년 갑사 개산대제

● 일 시 : 불기2549(2005)년 10월 9일
오전 09시부터 10월 30일까지

● 행사식순
오전 8시 삼신 괘불탱화 이운식
◇ 09:00 헌다 (개산조 및역대 조사 종사님에게 헌다) 장소 : 부도전
◇ 09:30 상단불공 (대웅전)
◇ 10:30 영산재 대법회
(범패와작법 : 무형문화재 범패이수자: 송강스님외 4인)
◇ 11:30 법요식
노래 : 계룡대 호국사 여시아문 합창단
연주 : 계룡대 호국사 해군 군악대

순국 제413주년 제6회 기허당 영규대재 추모행사

전쟁기념관 선정 8월의 호국인물에 기허당 영규스님 선정.
기허당 영규대사의 삶과 철학이 군과 젊음이들에게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일 정 : 2005년 10월 22일 (토) 오전11시
● 장 소 : 갑사 표충원 ● 주 관 : 군종특별교구군승단
● 협 찬 : 충청남도/ 공주시 / KBS대전방송/ 대전 MBC/ TJB 대전방송/ CMB대전방 송 / 대전일보 / 중도일보/충청투데이/공주신문/ 백제신문/ 불교 신문/ 현대불교신문/법보신문/주간불교/ 월간백제불교/ 갑사신도회/ 백제불교 신행단체협의회
● 행사식순 : 위패봉안-화엄시식-타종-산사의 노래-개식사-삼귀의-국민의례-묵념-행장소개-봉행사-헌다-헌향/헌화-아미타불정근-축원-반야심경봉독-기념사-추모사-추도사-청법가-추도법어-사홍서원-조총-폐식사

제 6회 산사 음악회

● 일 정 : 10월 22일(토) 오후 2시
● 장 소 : 갑사 경내 (범종각 앞)
● 주 관 : 공주시청
KBS대전방송
계룡산 시민 보전모임
● 출연진 : 김종환(존재의이유),
김도향(바보처럼살았군요)
박정식(천년바위), 정훈희(안개),
오카리나연주팀(5인조) 등

갑 사 대 축 제 행 사 안 내

1. 갑사 부처님 복장물 특별 전시회 및 성보 탁본전시
갑사 대웅전에 모셔진 삼신불 후불탱화에 형상화 되어있는 영조 6년(1730년)에 의겸스님이 조성한 복장물을 최초로 일반대중이 친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중생들이 이고득락 하고 가내평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 일 정 : 10월 9일 부터 10월 30일까지
◆ 장 소 : 보장각 특별 전시관
※ 성보 탁본전에는 갑사에 전해 내려오는 1600년의 사적이기록된 의미깊은 탁본을 망라하여 전시하며도록을 만들어 보급합니다.

2. 전통차 시연회
한국의 전통차 시연회를 열어 불가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연차를 개산대제 에 참석한 일반 대중들과 함께합니다.
◆ 일 정 : 2005년 10월 9일 오후 1시부터
◆ 장 소 : 강 당
◆ 주 관 : 정정자 선생님과 계룡대 호국사 불자회원

3. 개산대제 기념 만등불사 모연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고 소구 소망을 성취 시켜주는 신령스럽고 영험한 갑사 삼신괘불탱화 (국보제298호)와 함께하는 "천년의 산울림" 창건 제 1585주년기념 계룡산 갑사 개산대제 행사기념으로 만등불사를 접수합니다. 만등불사는 모든 사물의 도리를 분명히 꿰뚫어 보는 깊은 지혜인 반야와 희생, 광명, 찬탄을 상징하며 공양하므로 반야등(般若燈)이라고 합니다. 특히 병고쾌차. 승진. 취업. 수능고득점발원. 안전운전등에 영험이 있는 만등불사 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만등불사 회향일 : 2005년 10월 31일 오후 5시
만등불사 접수자는 회향일 날 모두 촉원하여드립니다
◆ 만등불사 회향일 : 2005년 10월 31일 오후 5시
◇ 만 등 : 1인1등 1만원 ◇ 영가등 : 영가 1위당 1만원

4. "삼천년의 미소" 성효스님 연꽃사진 전시회
◆ 일시 : 10월 9일 부터 10월 30일 까지
◆ 장소 : 범종각

5. 신진호 작가의 서양화 그림 전시회
◆ 행사일시 : 2005년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 장 소 : 보장각 전시관

6. 가 훈 써주기 행사
각 가정에 부처님의 좋은 경구를 가훈으로 만들어서 수지하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행사 일원으로 유명작가를 초빙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가훈을 직접 써줌으로 가정에서 가보로 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일시 : 2005년 10월 9 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 장 소 : 범종각 1층
◆ 작 가 : (남림) 최기 선생님/
(심제) 윤기수 선생님)/
김영윤 선생님

7.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장터
대전광역시지정 대전시니어클럽은 만 55세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재공해주고 노인들과 함께하는 복지시설단체입니다.
행사기간동안 노인분들이 손수 만드신 음식등을 장터를 통하여 함께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 일 시 : 2005년 10월 9일 -10월 30일
◆ 장 소 : 갑사 사천왕문 옆
◆ 주 최 : 대전광역시지정 대전시니어클럽 본부
◆ 종 목 : 콩모아두부판매/ 의류/ 생필품/
먹거리장터 등

계룡산 갑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 문의 : 전화 041)857-8981 / 홈페이지 www.gapsa.org

10월 1일 한강서 뛰어요

서울광역신도회 주최, 달마마라톤 · 걷기명상 등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는 10월 1일 서울 여의도 수변마당 일원에서 제2회 한강행복문화축제를 진행한다.

이번축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환경마당. 환경마당에서는 환경 NGO가 공식 발족될 예정으로, 발대식에는 각 사찰 소속 신도회, 청년회, 불교대학의 학생들과 신행단체 및 불교산악회의 회원이 참가한다. 또 사찰 및 신행 단체별로 한강 유역을 구역별로 관리하며 향후에도 환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토회가 벌이고 있는 '빈그릇운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즉석 서명운동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5km, 10km, 하프코스, 30km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달마마라톤과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스님이 지도하는 '걷기명상', 하유스님의 법고와 원효대사 무애춤, 연예인 축하쇼 등으로 축제마당은 이어진다. (02)733-0271

유철주 기자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착공

태고종 29일 기원법회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착공식 및 건립불사 원만성취 기원법회가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사간동 불사 현장에서 봉행된다.

태고종은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건립성금모금과 3천불 모연불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남은 건립불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전승관이 종단 새 역사 창조의 기반을 조성하는 산실이 되도록 종도들이 일심 단결하여 대작불사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승관 신축부지 일부에서 옛 건물터가 발견돼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가 이뤄져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태고종은 9월 21일 선암사 대웅전에서 총 2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29기 합동득도수계산림 입제식을 봉행했다.

김원우 기자

동국대 경주 교수회 총장불신임 투표

9월 27~29일 실시

그동안 실시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홍기삼 총장 불신임 투표가 9월 27~29일 사흘간 강행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직 교수 약 370여명 가운데 각 단과대 대표 3인으로 구성된 교수회 대의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중간평가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총장 불신임 투표는 동국대 사상 초유의 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투표결과에 따라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불교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투표는 각 단과대학 교학과 및 경주 포항 일산 분당한방병원 등에서 실시되며 개표는 29일 오후3시 경주교수회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조용수기자

"필동병원 비효율적 매입"

동국대 조사특위 발표

조계종 중앙종회의 '동국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9월 22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필동병원매입 관련의혹 등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조사활동을 벌였던 특위 소위원회는 "총 1000억원이 넘는 부채 급증으로 인해 학교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재단과 교수, 학생 등 학교 구성원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재단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대해 영배 스님은 "특위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적이 없었는데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수 기자



법장 스님 법구 기증으로 노년 여성 불자들의 '생명나눔' 참여가 눈에띄게 늘고 있다. 사진은 9월23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을 방문한 한 보살이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있다.

생명나눔 열풍 전국 확산

법장 스님 법구 기증이후 문의·신청 10배 증가

"장기기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최근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생명나눔)에는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장기기증 문의와 신청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생명나눔 이사장이었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법구가 9월 12일 동대 일산병원에 기증된 것을 계기로 불자들의 '장기기증' 신청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명나눔 측은 9월 23일 "평소와 비교해 장기기증 신청과 문의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루 5건 이내에 불과했던 장기기증 신청 · 문의 전화는 현재 약 50통 정도. 게다가 인터넷과 우편엽서, 직접 방문 신청자들까지 더하면 실제 장기기증 신청 · 문의 건수는 훨씬 늘어났다고 생명나눔 측은 설명했다.

장기기증의 형태까지 달라졌다. 사후 각막 기증 신청만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사후 시신기증 및 장기기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생명나눔' 열풍은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생명나눔 광주전남지원의 경우 일주일에 3건 남짓이었던 장기기증 문의가 10배 정도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전남지원 정설희 간사는 "이전까지는 '장기기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다면, 법장 스님 법구 기증 이후에는 불자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신청자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간사는 "수차례의 캠페인보다 큰 스님의 '본보기' 한 번이 '생명나눔' 알리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말했다.

이런 생명나눔 열풍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노년층 여성 불교신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장 스님의 영향으로 사후 시신기능을 주저하던 노년층 불자들의 상당수가 생명나눔의 원을 세우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나눔'에 뜻은 갖고 있었으나 선뜻 마음을 내지 못했던 이들에게 법장 스님이 좋은 표본이 된 것이다.

23일 생명나눔 사무실을 방문, 사후 시신 기증에 서명한 김성복(92) 어르신은 "이번 추석에 자식들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신기증을 서약했다"면서 "법장 스님의 뜻을 이을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02)734-8050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법장 대종사 추모제

조계사-수덕사 등서 봉행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 추모제 초재와 2재가 9월 17일과 24일 예산 수덕사와 서울 화계사에서 각각 봉행됐다.

3재는 10월 1일 오전 10시 합천 해인사, 4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법룡사(비구니회관), 5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생명나눔실천회), 6재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도선사, 49재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100일재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예산 수덕사에서 각각 거행된다.

그러나 수덕사, 선본사, 조계사에서는 초재부터 49재까지 모두 엄수된다.

남동우 기자

北 영통사 10월28일 낙성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0월 28일 개성에 복원 중인 영통사의 낙성법회를 봉행한다고 9월 23일 발표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등은 22~23일 금강산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정서정 서기장 등 북측 실무자들과 만나, 영통사 낙성법회 날짜 등에 대한 최종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무원 스님은 "북측에 방북인원을 350명까지 늘려달라고 추가제안을 한 만큼 인원조정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中 선종 되살리는 불사 시급"

조계종 선원장스님 22명 선종원류 찾아 중국순례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원장스님 22명이 선종의 원류를 찾아 중국 조사 스님들의 수행처를 순례하는 뜻 깊은 불사가 9월21일 14박15일을 일정으로 회향됐다.

고우 무여 혜국 현산 인각 설우 스님 등 조계종 수행지침서 <간화선> 편찬에 참여했던 스님들은 1조 달마선사부터 2조 혜가선사, 3조 승찬선사, 4조 도신선사, 5조 홍인선사, 6조 혜능선사가 수행했던 유적지등을 참배하고 한국불교 간화선의 원류를 확인하면서 곳곳에 배인 조사 스님들의 구도열정을 가늠하며 감동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순례에서 선원장스님들이 주목한 곳은 중국 현지에서 일고 있는 7조 남악회양 선사의 부도와 수행지인 복엄사, 그리고 8조 마조도일 선사의 주석처인 마경대와 남태사.

선원장스님들은 한국 선종사에서는 다소 가려진 이들 조사 인연지에 참배하고 끼친 법력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선종의 원류인 중국 조사 스님들의 선맥이 현재 중국 스님들에서는 단절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 선원장 스님들은 중국 현지에 선종을 되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용수 기자



5조 홍인 선사가 법을 폈던 오조사 입구에서 기념촬영한 조계종 선원장스님들. 사진제공=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친일청산 촛불집회 6일 조계사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입적으로 연기됐던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가 10월 6일 조계사에서 개최된다.

봉선사 총무국장 가산 스님은 "최근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가 계속되고 내원암 소송 공판도 진행되고 있어 촛불집회를 가능한 빨리 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앞서 봉선사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는 9월 25일 남양주 수락산 마당바위 유원지와 내원암 등지서 '내원암 수호 등 반대회'도 진행했다. 유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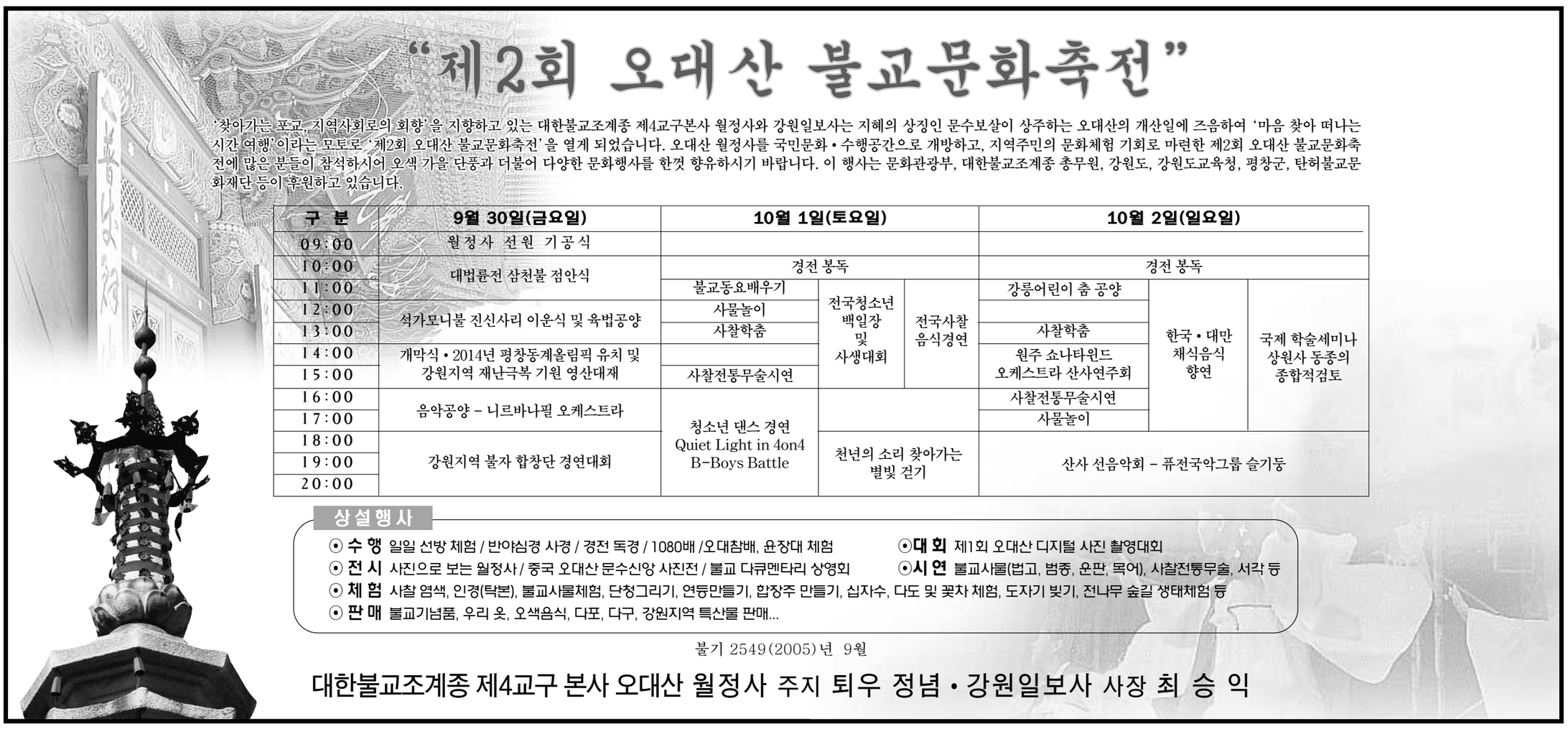
통도사 젊은 승가회 단식 돌입

통도사 주지 직무대행 현문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며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차례 참회정진과 삼보일배를 가졌던 '통도사 젊은승가회' 스님들이 단식에 들어갔다.

'통도사 젊은승가회' 스님들은 '현문 스님 사퇴를 위한 단식 정진에 들어가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현문 스님이 주지 직무대행 임명장을 받아와 승가의 약속과 신뢰를 깼다"며 2차 정진에 들어간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통도사 집행부는 "방장 인준이 이뤄지면 사퇴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통도사 내분과 화합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다종교 사회에서 하나의 종교가 그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위치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구성원이 많은 종교는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시 교세를 확장하는 순환적 시스템이 형성된다. 따라서 지식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포교(선교) 활동에 따라 그 종교의 미래가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지식인 불자와 친 불교 지식인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이들이 포교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지식인, 포교 대상 아닌 주체로 나서야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불교는 저학력자들이 믿는 종교?

"불교는 50~60대 저학력 아주머니들이 주로 믿는 종교다?"

이교도들이 불교를 폄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트리고 있는 말이 아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현실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월 발표한 제4차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불교인 중 '대학교 재학 이상'은 15.6%로, 개신교인 26.6%에 비해 10%이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비해 전체 불교인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43.8%로, 개신교인 11.0%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이 같은 현실은 본지와 대한불교진흥원이 지난해 9월 창간 10주년 특집으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한 '한국인의 종교인식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사 결과 중 종교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불교' 신자는 △여자(27.7%) △연령이 높을수록(50대 이상:31.6%) △학력이 낮을수록(중졸이하:34.6%) 많았다. 이에 비해 '개신교' 신자는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재학이상:26.7%)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식인 불자의 희소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바로 지난 3월 한국대학신문이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총장의 프로필을 조사·발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질문에 응답한 180여명의 총장 중 자신의 종교가 '불교'라고 대답한 사람은 15%에 불과한 26명이었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79명(44%)이었다. 총장이라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종교를 밝히기 꺼려했을지도 모르지만, 종립대학교를 제외하면 불자 총장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김용표 회장(동국대 교수)은 "1970년대만 해도 불교는 미신이며 기독교는 고등종교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이러한 오해들이 지식인 불자의 희소성을 가져오는 한 측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사회 격변기엔 늘 뒷짐

구한말 자본주의와 함께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국내 종교계 판도는 크나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기독교의 직접적이며 공격적인 선교활동으로 인한 교세 확장 외에도,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몇몇 눈 밝은 이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등 기독교 국가로 유학을 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자가 됐으며 다시 국내로 들어와 지식인층을 형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정관계 및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요직에 앉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기도 했다. 지역별로 개신교 정치·경제·사회·문화 주요 인사들이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간 것이다. 지난해 불거졌던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 사태가 대표적이다.

불교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근대화나 독립운동, 민주화 흐름 속에서 늘 뒷전에 있거나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는 식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분(?)'이 별로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50년대 정화'를 시작으로 '조계종 사태'까지 불교는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종교로 비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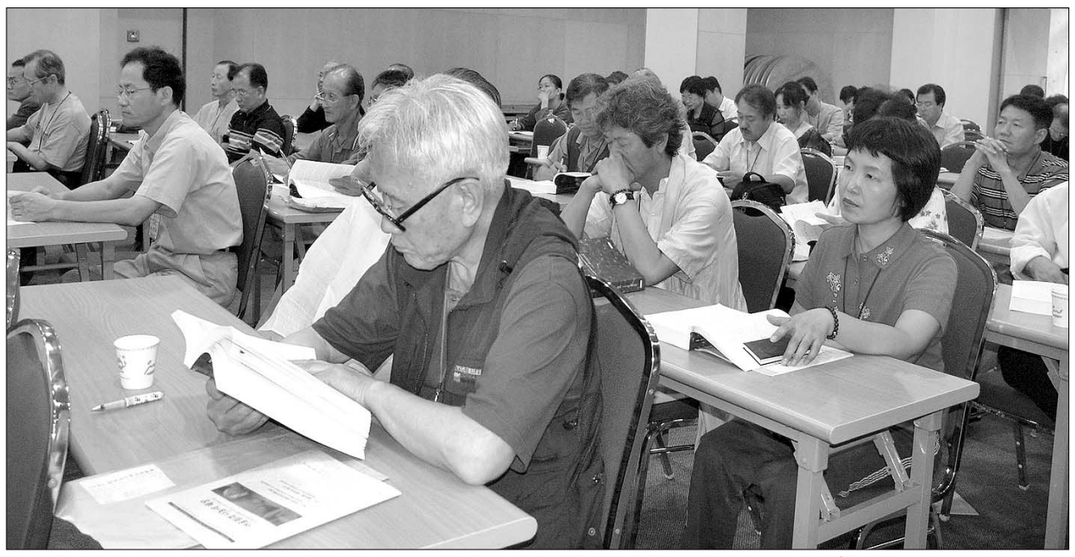
이에 비해 기독교는 학교교육, 남여평등, 근대적 의료시설 등에 늘 앞서 있었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기독교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고 특히 지식인층에 강한 어필을 할 수 있었다.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는 "기독교의 경우 배아복제나 생명공학 등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분야에 대해서도 교리적 원칙을 정립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교도 사회적 이슈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대학 등 도심포교와 연계를

지식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 그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불교계에 대입해 보자. 지식인 불자들은 불교계 내에서 상위 계층을 점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쉽게 빨리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자신의 수행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지구촌 시대의 한국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한국 2005 한국교수불자대회 장면. 교불련은 대표적인 지식인 불자 단체다.

전문영역별 조직체계 구축 … 지식인 불자 발굴·양성

사회 공동선에 대한 교리 해석·실천방안 적극 내놔야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지식인 불자들은 포교 대상일 뿐 아니라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지식인 불자들은 자신의 전문영역을 바탕으로 습득한 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다. 비근한 예가 서구유럽이나 미국이다. 이들 지역 불교의 중심에는 재가자가 있다. 이 재가자들은 포교 대상이기보다 포교 중심에 서 있다.

지식인 불자들을 발굴해 내고 양성시키기 위해선 먼저 영역별 조직체계가 형성돼야 한다.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야 관련 지식인 불자들을 조직화하고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당사자들의 노력 뿐 아니라 각 종단의 적극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각 종단이 기본적 생활조차 어려운 지식인 불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준다면 튼튼한 이론적 실무적 토대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절에 오게 하는 불교보다는 생활 속에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불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즉 지식인 불자 만들기 포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목말라하는 부분에서 보다 명쾌하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자가 될 수 있다 얘기다.

지식인 불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선 분야별로 전문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은 올해초 교수포교사제도안을 조계종에 제출했다. 이는 포교원 3인, 포교사단 3인, 교불련 3인으로 구성된 포교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교수들의 교화실적을 근거로 교수포교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교수포교사제도가 시행되면 교수 불자들의 권위와 동기 부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불련측의 설명이다. 특히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해 나갈 대학생 포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도심포교 또한 지식인 불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대목이다. 1984년 보증금 5백만원, 사글세 15만원, 28평 규모로 시작한 능인선원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능인선원은 불교대학에서 50여 명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 동문을 배출했다. 관계, 재계, 언론계, 기업 임원, 교수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도 불교공부한 능인선원은, 대형 도심사찰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20만 명이 넘는 불교대 동문들에 있다고 강조한다. 각종 종립학교에서의 자연스런 포교 활동 또한 지식인 불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식인 포교를 위해서는 불교가 사회적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특정 종교가 사회 전 부문에 가이드 기능을 할 수 있었으나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공동의 보편적 가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인권이나 환경 등 사회적 공동선에 대해 교리적 해석을 내놓고 강한 실천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수경 스님의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나 지율 스님의 천성산 살리기 단식 정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대종사의 법구 기증 등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고 있다.

미주 포교 40주년을 기념해 법장 스님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현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포교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묻자 하나같이 '언어'를 꼽았다. 현지인들 뿐 아니라 한국말에 서투른 교포 2,3세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선 스님 스스로 현지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문화에 정통해야 한다.

또 지식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포교할 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방법이 필요하다. 부처님이 여건과 상황에 맞게 방편설을 하셨던 것처럼 지식인들 수준에 맞는 포교를 하기 위해선 보다 질 높은 승가 교육 및 재교육이 필수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 잠재력은 매우 크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교 성장 배경에는 합리성과 배치되고 현대성과 모순을 일으키는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지식인의 합리성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포럼을 진행해온 노귀남 박사(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는 "포교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 위해선 불교만 잘 알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지식인 불자들이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서 포교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자발적으로 생산해 내고 종단 차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동우·박익순 기자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www.beomeosa.co.kr
개산 1327년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문예는 문을 열다 2005년 10월 1일(토) ~ 3일(월)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KBS부산방송총국
● 주관 :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봉행위원회, 범어사 신도회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 현대불교. 부산불교방송.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불교거사림회.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학술회의	의식행사	공연행사	상설전시	어울림 한마당
근현대 불교와 범어사 1.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조명제/부산대) 2. 근대불교 범어사의 사격과 선찰대본산 (김광식/부천대) 3. 한말, 일제시기 범어사의 사회운동 (강재순/부경대) 4. 동산 선사의 선사상 (이덕진/창원전문대)	• 의상대사 개산대재 • 천년자비 등 밝히기 점등식 • 다비식 시연	• 길놀이 / 개막봉축공연 • 범패한마당 • 범어음악회 • 타악 뮤지컬<야단법석> • 산사영화제 • 불무도 시범 • 달마그리기	• <풍경소리> 전시 • 천연 염색전 • 전통 보자기 전시 • 웅천 차사발 전시 • <돌의 향기> 사진전 • 통칙스님 선 판화전	• 의상대사 백일장 사생대회 • 범어사 실버 가요제 • 도전! 범종을 울려라 • 내 마음 한켠에 야생화 심기 • 창작등 경연대회 • 사찰음식시연 • 통칙스님의 판화교실 • 전래놀이 한마당

천년자비 등밝히기 불사
동참금 : 1인 1등 1만원
접수처 : 범어사 원주실
문의처 : ☎051)508-3636

문의 및 연락처
전화 051)508-3122~6
팩스 051)508-3127
www.beomeosa.co.kr

청렴치 않다 53%

비상회의, '교단공직자 청규제정 위한 설문' 결과

부패방지 기구 '필요하다' 85.2%

불자들의 절반 이상(53.3%)은 교단공직자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중 9명의 불자들은 '공직청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청정교단수호 부패근절 비상회의(공동대표 수경 · 손안식 · 박광서. 이하 비상회의)가 지난 6월 13~30일 전국의 사부대중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설문은 조계종 등록사찰 1500곳과 재가불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로 진행됐으며, 조사에 응한 사람은 230명이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교단 공직자의 공직수행상의 청렴도를 묻는 질문에 '청렴하지 않다'(34.1%), '매우 청렴하지 않다'(19.2%)고 답해 '매우청렴+청렴'(13.6%)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또 공직청규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2.2%가 '필요하다(매우필요+필요)'고 응답했으나 '불필요+전혀 불필요'는 6.9%에 불과했다.

공직자의 청렴생활이 필요한 분야로는 '골프 등 위화감 조성금지'(26.8%)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재임 중 개인명의 통장 규제'(20.8%), '고급승용차의 규제'(2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서는 '재정의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32.4%), '특혜의 배제'(20.4%)가 가장 중요하며, 공직자의 부당이득을 금하기 위해서는 '이권개입금지'(36.1%), '공용물의 사적 사용이나 수익금지'(23.8%)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를 위한 독립적 기구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85.2%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기구구성 방식은 '불교단체 추천전문인'(43.3%)이나 '율원의 출가수행자'(29.3%)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부패방지 기구의 역할로 '청렴유지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업무', '청렴유지활동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청렴유지 규정 위반 신고접수' 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건축불사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86.3%)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또 직무수행에서 청렴유지의무 준수가 가장 필요한 교단공직자로 사찰주지(31.6%), 중앙종무기관(23.8%), 본사주지(20.9%)를 꼽았다. 그러나 비구스님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비구니스님은 본사주지, 우바새(남)는 사찰주지, 우바이(여)는 중앙종무기관의 청렴유지의무 준수가 중요하다고 답해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비상회의 박광서 대표는 "이번 조사는 공직청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규제정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나눔의장터 펼쳐

10월 9일, 공주 갑사 개산대제

공주 계룡산 갑사가 개산대제를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개산대제는 '천년의 산울림'을 주제로 10월 9일 오전 9시 갑사 부도전에서 열린다. 이날 개산대제에서는 영산재가 시연된다.

10월 22일에는 오전 11시 갑사 표충원에서 '제6회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행사'가 진행되며,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먼저 산사음악회가 열리기 전인 10월 9일부터는 보장각 특별전시관에서 '갑사 부처님 복장물 특별 전시회 및 성보 탁본 전시 행사'가 30일까지 계속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삼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한 '성효스님 연꽃사진 전시회'와 '신진호 작가의 서양화 그림 전시회'가 경내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갑사가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기관인 대전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이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회향하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장터'도 열린다. (041)857-8981

한명우 기자

월정사, 재난극복 영산대재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일환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경내에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강원지역 재난극복 기원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제2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리는 영산대재는 월정사 회주 현해스님의 증명 아래 법고, 범패, 기원무 공연, 영산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매주 반복되는 수해나 화마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며 "지역의 안녕과 주민들의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을 평창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산대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고운사, 노인요양시설 건립 9월 23일 기공식 봉행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에 의성군 최초의 군립 실비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된다.

경북 의성군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게 될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고운사 산문 옆(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22번지)에 짓기로 하고 9월 23일 기공식을 거행했다.

기공식에서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군과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게 돼 이제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최고의 노인요양시설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총 1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0평 건물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5월 말 완공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포교사단 8재계수계법회 10월 8~9일 해인사서

전국의 조계종 포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조계종 포교사단 8재계수계실천대법회'가 10월 8~9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다. 팔재계는 팔관재계라고도 하며, 재가자가 하루 동안 출가자가 되어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법전 스님의 증명아래 지관 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나서며, 종진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혜능 스님이 교수아사리를 맡는다.

이번 대회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지계실천 교육을 받은 후 8재계 실천항목을 108배하며 사경, 독송하고 연비를 한 뒤 새벽까지 철야정진을 한다. 또 10월 9일에는 해인사의 목조 비로자나불상과 복장물을 친견할 예정이다.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팔관재계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계실천운동을 펼치고자 이번 대법회를 연다"고 밝혔다. (02)737-7588

이은비 기자

위덕대, 독후감 공모 지정도서 '느리게 산다…'

위덕대(총장 한재숙)가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위덕독서대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독서대상공모는 지난해 7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면서 전국규모의 문예공모전으로 자리 잡았다.

참가희망자는 올해 제시된 지정도서 <느리게 산다는 의미(피에르 쌍소)>외 9권 중 한권을 읽고 9월 20일~10월 22일까지 200자 원고지 10장 내외로 감상문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읽은 책이름, 지은이, 출판사명, 응모자 소속학교, 학년, 반, 전화번호, 주소, 성명, e메일주소 등을 반드시 별지에 기재해야 하며, 인터넷 응모는 받지 않고 우편으로만 접수한다. (054)760-1212~6, http://lib.uu.ac.kr

조용수 기자

금강대, 장학금 지급 전국 최다 1인 평균 252만여원

천태종 종립 금강대(총장 김유혁)가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도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일반대학교 장학금 지급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금강대는 총장학금액을 등록학생 총수로 나눴을 때(학생1인당 장학금 배당비율)에서 1인당 평균 252만8000원(전국 사립대 1인당 평균 11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강대 다음으로는 한국정보통신대 217만7000원, 가천의대 212만2000원, 포항공대 188만3천원 포천중문의대 177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

조용수 기자

서울 관문사, 창건 7주년 고승유묵전시회 등 행사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춘광) 창건 7주년 기념법회가 10월 2일 옥불보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법회는 특히 천태차문화연구회의 '고려 상원연등회' 재현, 금강합창단의 합창, 춤소리 무용단 양혜진씨의 교방굿거리, 살풀이 등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관문사 고승유묵전시회는 10월 2~9일까지 3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만공 스님이 수제자인 보월 스님에 전한 전법계, 청담 · 벽안 · 서옹 스님 등 근대 고승들의 서예작품 등이 선보인다.(02)3460-5310

강유신 기자

'스님 비하' 공식 사과

고영진 경남도 교육감, 조계종 총무원 방문

참여불교, 종교편향 금지법 제안

경상남도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13~14일 치러진 '2005년 경남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서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출제된 것과 관련, 경상남도 고영진 교육감이 9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과 사회부장 정념 스님 등을 만나 "스님과 불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또 "관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교육계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과 비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은 "없는 속담까지 만들어 가면서 불교를 비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교육 공직자들이 종교를 비방하고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만드는 일로써 향후 철저한 자기반성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총)는 9월 21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현장의 종교편향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제정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임대표 혜총 스님은 "종교편향적 교육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향후 종교 편향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교 편향 금지를 위한 법안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 유철주 기자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재검토"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문광부 국감서 주장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9월 22일 진행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케이블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무시하며 난개발을 강행한 대표적 사례"라며 "공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투입된 국고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륵산은 정상 등산까지 1시간가량만 소요되는 낮은 산이고 △조계종이 3회에 걸쳐 반대공문을 보내고 8월 23일 최종불허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통영시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공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주민 찬성률이 83%였다고는 하나, 13만 3900명의 24.6%인 3만 3000여명이 참가하여 던진 찬성표(2만 7000명)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확한 진위를 파악한 뒤 사업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철주 기자

지역단체와 연계 국민운동으로

계룡산 살리기 불교연대 출범

불교성지 계룡산을 살리기 위해 충남지역 불교계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계룡산 살리기 대전 · 충남 범불교연대'(상임대표 장곡, 이하 계룡산 불교연대)는 9월 20일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열린 창립 기자회견에서 계룡산 불교연대 상임대표 장곡 스님(공주 갑사 주지)은 "최근 정부가 북한산과 천성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또 다시 호남고속철 공사를 통해 계룡산을 훼손하려 하고있다"며 "지역 불교계는 연대모임을 통해 힘을 모으고 향후 계룡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곡 스님은 이어 △계룡산을 훼손하는 어떤 개발사업도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되며 △호남고속철 노선 확정 이전에 진행되는 모든 행정절차의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호남고속철 노선확정 전에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갈등의 불씨를 잠재울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계룡산 불교연대는 앞으로 사찰별 계룡산 훼손 반대 현수막 게시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종교계와의 연대활동,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계룡산 보존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글 · 사진=혜철 대전충북지사장

성 명 서

현문스님 사퇴를 위한 단식정진에 들어가며

승가의 가치는 화합상생입니다.

그리고 이 화합상생은 대중적 공의 수렴이라는 불가 전통의 민주적 과정에 의해 창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나라 전체의 민주 발전을 선도하는 정신적 귀의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축총림은 지난 4년 세월을 대중적 공의 의 수렴과정이 생략된채 몇몇스님들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행정진 보다는 이권에 익숙한 몇몇에 의해 승가의 화합은 멀어져 갔습니다.

이와 같은 통도사의 상황에서 지난 8월 22일 제3차 산중총회는 지난날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채울 수 있는 불보살의 가피의 장이 되는 듯 했습니다. 대중들은 환희의 박수를 쳤으며, 이제는 지난날의 불신과 반목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이에 총림대중들은 9월 6일 현문스님이 주지 임기 만료에 따라 깨끗이 물러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후 대중적 공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지직무대행을 선출하여 전 대중이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중앙종회에서 방장 인준을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산중총회 다음날 네분(초우스님, 성파스님, 현문스님, 산옹스님)의 스님이 모여 여타 대중과의 일언반구 의논 없이 현문스님의 재임추천서(직무대행 추천서가 아님)가 작성되었습니다.

현문스님은 그 재임추천서를 가지고 직무대행 임명장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역사의 퇴행이며 모든 것이 양명해져 가는 이시대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통도사의 젊은 스님들은「통도사 젊은 승가회」를 결성하여 3일간 참회정진을 통해 현문 주지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 스님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어떠한 해명도 없이 「통도사 젊은 승가회」를 특정 문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불순한 집단으로 호도하며, 자기모순을 은폐하고 또 다른 밀실 정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통도사 젊은 승가회」대중들은 우리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해 **칠일 참회정진과 무기한 단식 정진(단식스님: 진각, 현덕, 혜원)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지금의 문제를 문중 갈등으로 호도하는 저들의 몰염치함에 속지 말고 화합 상생을 위한 환골탈퇴의 여법한 정진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 밀실에서 만들어진 현 주지 직무대행 스님은 즉각 사퇴하라.
- 밀실정치에 동참한 네 분 스님은 대중 앞에 참회하라.
- 통도사의 대중 공의를 알면서도 임명장을 발부한 총무원은 더이상 통도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불기 2549년 9월 21일

통도사 젊은 승가회

일주문



정토법당서 '육조단경' 강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9월 21일 시작해 11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정토법당에서 육조단경 가을 특별 강좌를 진행한다.(02)587-8993



복지관 건립기원 산사음악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10월 8일 오후 7시 30분 법왕사 문화관에서 복지관 건립 기원 산사음악회를 연다.(053) 766-3747



수원 용광사 대불보전 낙성법회

수원 용광사 주지 월중 스님은 9월 28일 오전 11시 대불보전 낙성법회를 사부대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한다.(031)255-4105



안성공설운동장서 영산재 공연

안성 송강사 주지 송강 스님(무형문화재 50호 전수교육 보조자)은 10월 7일 오후 1시 안성공설운동장에서 영산재 공연을 한다.



'만세보령대상' 봉사부문 수상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은 보령시가 시상하는 만세보령대상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시민경축의 날 행사가 열리는 10월 4일 수상식을 갖는다.



소아암환자 위한 음악회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9월 27일 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제3회 소아암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53사찰 순례로 신심 배가"

부산 범어사 신임 신도회장 박정현씨



"범어사를 울타리 삼아 신행활동을 하는 신도님들이 내 집처럼 느끼며, 스스로 회비를 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신도회 조직의 내실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9월 21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범어사 신임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박정현(53 · 다림건설 대표 · 사진) 회장은 산내 암자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신행활동을 해온 신심깊은 불자다. 10대 나이에 범어사와 인연이 돼 드러나지 않게 절, 염불 등으로 수행 정진해온 박회장은 범어사 신도회장을 맡으면서 크게 두 가지의 원력을 세웠다.

신도들끼리의 나눔을 실천하며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느끼도록 신도조직 내실을 기하는 것과 화엄 10찰 중의 하나인 범어사의 창건 이념에 걸맞게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진리를 구했듯 전국의 53사찰을 찾아 순례하고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지순례를 진행하는 것.

"일반적인 성지순례가 아닌 화엄의 세계를 화엄경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범어사만의 성지순례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박회장은 "무엇보다 신도님들이 자발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직을 지낸바 있는 박회장은 혼자 1백만 km에 달하는 답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고건축에 대한 관심과 조예도 깊다. 현재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회장은 "세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범어사 신도회가 발 벗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함으로써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스님들과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회장은 "범어사 신도회를 참다운 수행공동체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 뿌리 튼튼한 신도조직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삶 · 사랑 그리고 혼이 깃든 춤이 마지막 소망



'춤과 혼' 공연 안춘자 명인

"이번 무대는 나의 삶과 사랑에 대한 회고입니다. 혼이 깃든 춤을 추고 싶은 것이 제 남은 생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승무 · 살풀이춤 이수자 안춘자 단장(65 · 안춘자무용단 · 사진)이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을 결합시킨 무대 '춤과 혼'을 10월 4일 오후 8시 호암아트홀에서 공연한다. 몇 년 동안 '화두'처럼 품어왔던 '춤과 혼' 공연은 김영임의 회심곡 등을 배경음악으로 선정한 후에도 준비기간만 1년이 걸렸다.

"1993년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허리가 뒤틀려 춤을 출 수 없을 지경이 됐죠."

그때부터 안단장은 설악산 안락암 홍련암 등지에서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추스렀다.

'춤과 혼'은 총 4장으로 이루어진다. 1장은 예고 없는 죽음의 길에서 이승을 바라보며 회상하던 남자가 떠나는 아쉬움을 표시한다. 남자의 혼이 떠나고 남아 있는 여자가 등장하는 2장은 안단장이 긴 수건을 휘날리며 춤을 춘다.

혼을 보내는 장면은 3장에서 지전으로 혼을 어르고 달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마지막 4장에 이르면 살풀이로 혼을 달래 보낸다. 이곳에서 펼치는 살풀이는 마임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그리고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아쉬움과 슬픔도 춤으로 승화된다.

강지연 기자



제14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거행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9월 23일 서울 안암동 승가원 강당에서 제14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주영운 이사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가 '학술 및 역경상'을, 고현 조선대 교수가 '예술상'을 수상했다.

은교수는 "원효학 연구에 바친 노력을 인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고, 고교수는 "불교미술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백만원, 부상으로 죽비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원문화재단은 대학생 8명, 고등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익순 기자

부산 문수사 대웅전 상량식



부산 문수사(주지 지원) 대웅전 상량식이 9월 23일 거행됐다.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 5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상량식에서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은 "문화와 복지, 신행을 함께 가꿔나가는 종합적인 도량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사암련 영규대사 추모제향



충북 옥천사암연합회(회장 지원)는 9월 21일 가산사에서 영규대사 추모제향을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향에는 사암연합회장 지원 스님, 총무 혜철 스님을 비롯해 유봉열 옥천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옥천사암련은 옥천군과 함께 매년 영규대사를 기리는 추모제를 거행해 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불교회 이웃돕기



인천 중부경찰서 불교회(회장 이판열) 불우이웃돕기 생필품 전달식이 9월 14일 열렸다. 이날 중부경찰서 불교회는 쌀과 라면, 의류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내 아동 · 노인 ·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전달했다. 이판열 회장은 "힘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참다운 봉사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제5회 미당문학상 수상 문태준 시인

"散철없이 수행하는 스님처럼 시 쓰고 싶어"

시인 문태준(35 · 불교방송 PD · 사진)씨가 시 '누가 울고 간다'로 중앙일보사와 계간 <문예중앙>이 공동 주최한 제5회 미당문학상을 수상했다.

예심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지지를 받았고 대학 평단에서도 시인 · 소설가 통틀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으니 그의 수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9월 22일 만난 문씨는 그 번잡스러움에서 한 발 비켜 서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방송을 마친 후 문씨는 "상을 받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금의 상황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한 문씨는 그동안 시집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을 펴냈고, 동서문학상과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무려 41편의 시를 발표했다. 이런 문씨의 시에 대해 미당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우리 시를 위무의 성소(聖所)로 이끄는 언어의 축복"이라고 평했다.

"늘 존재에 대해, 생명에 대해 생각합니다. 존재 사이의 다툼이 없어지고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모두가 화해하고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나'란 존재는 단독자가 아니라 다른 생명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적인 세계를 시를 통해 보여주고 싶다"는 그에게 불교는 법당에 피워 놓은 향처럼 자연스레 배어들었다.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다니던 직지사나 취재 차 들렀던 사찰에서나 틈틈이 읽고 있는 경전에서도 불교는 그에게 조금씩 스며들었다.



"시를 왜 쓰느냐"는 우문에 그는 "생명에 대한 연민 때문"이라고 답했다.

"왜 써야만 하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지는 답하기 힘들죠. 다만 이제 시는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식구가 돼버렸습니다. 바깥에서 만나면 늘 측은하고 안쓰러운 그런 식구 같은."

"누군가 내 시를 읽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생명과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문씨는 "산(散)철 없이 수행하는 스님처럼, 돌이킴 없이, 평생 주저하지 않고 쓰고 싶다"고 말한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그의 시는 내년 초쯤 한 권의 시집으로 묶여 나올 예정이다.

시상식은 10월 28일 오후 5시 서울 서소문동 명지빌딩 2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제 2 회 석문사 경로잔치



귀의삼보하옵고
이번 석문사에서 청원군 군민과 함께 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석문사는 청원 남이면 불교 사찰로서 자비실천의 불교 역할을 널리 알리고저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청원군의 특성을 살리고 관과 민이 함께 지역의 문화행사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통사상과 효 실천이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가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열리는 시간 :** 신명풍물예술단의 전통의 향연으로 열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 **흥겨운 시간 :** 트롯과 가요를 통하여 출연자와 관객과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 참석한 어르신 에게 석문사 신도회에서 정성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점심공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사 및 음료 떡 주류 다과 등)
- **출연진**
  신명풍물예술단 스페셜 공연 (단장 외 7명), 민요 – 강선자 외 2명, 무용 – 정유진.이연경, 덕송초등학교 사물놀이단

■ 행사 개요

- 일 시 : 2005년 10월 9 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장 소 : 남이 초등학교
- 주 최 : 호국불교 효혜종 참된 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주지 혜전스님 011-9607-2199
- 후 원 : 청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청원군노인회. 석문사 신도회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대전충북 지사장 011-9422-8453 혜철스님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걀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릭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줄을 당길때만 하나가 아니다. 청암사 학인스님들과 학생 · 학부모 · 교사는 늘 하나다. 환한 웃음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이들의 모습은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닮았다.

청암사 비구니스님들과 함께 하는 증산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영차! 영차! 모두가 '동자승'

높이 매달린 스피커를 통해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행진곡 풍의 음악소리. 반짝 반짝 눈을 빛내며 출발선 앞에 선 아이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전력 질주하는 아이들의 뜀박질. 하늘 높이 펄럭이는 만국기.

9월 23일 김천시 증산면 증산초등학교에서는 가을운동회가 한창이다. '경축! 가을 체육발표회'라는 플래카드가 작은 교문에 내 걸리고 음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자 면장님, 우체국장님, 파출소장님은 물론 동네 어르신들까지 하나 둘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증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들도 언니 오빠들의 경기에 함께 했다.

전교생이라고 해봤자 46명이 전부인 증산초등학교. 학생수로 보면 팀을 나눠 진행되는 운동 경기가 될까 걱정스럽지만 이날의 운동회에는 특별한 선수들이 따로 있다.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보다 더 환한 웃음 지으며 뛰고 응원하는 그 선수들은 바로 청암사(주지 상덕) 승가대학(학장 지형) 학인 스님들이다. 벌써 16년째 청암사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선수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암사 스님들이 증산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그 보다 훨씬 오래전인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난했던 시절,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던 청암사 스님들이 운동회에 학부모로 참석하면서 시작된 전통이다. 학부모로써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응원하던 스님들의 뒤를 이어 이제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는 30명의 스님들이 참여했다.

홍팀, 청팀, 황팀으로 나눠 진행된 경기에서 스님들도 승복에 색깔 깃을 달고 아이들과 편을 이뤄 운동장을 누빈다.

"뭔 스님들이 저리 힘이 좋아?"

학부모와 스님들의 줄다리기 시합에서 스님들이 승리를 거두자 운동장 나무 밑에서 구경 중이던 마을 어르신이 농담을 건넨다. 스님들의 맹활약에 놀라는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오랜만에 스님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스님들이 더 잘하시고 좋아하는 거 같아요. 채소만 먹을 텐데 줄다리기 할 때는 힘이 너무 세서 놀라워요."

청암사 어린이법회를 다니다 피아노 학원시간과 겹쳐 법회에 나가지 못하게 된 미래는 운동회에서 스님들을 다시 만나자 반갑기만 하다. 일 때문에 부모님이 운동회에 함께 하지 못한 동호에겐 스님들의 응원이 힘이 된다.

30여 년 쌓아온 전통
16년 전부터 스님들 선수로 참여
태극권, 사물놀이로 흥돋우며
'함께 즐기는 포교' 펼쳐

"매년 스님들이 운동회에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스님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응원도 해주니까요."

운동장 한쪽의 차양막 아래 자리를 잡은 스님들의 응원은 그야말로 열성적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법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박수를 친다.

이날 하루만큼은 스님의 위의(威儀)를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달리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사실은 아이들보다 스님들이 더 좋아하는 거 눈치 채셨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모든 것을 잊게 돼요."

모든 경기에 단골손님으로 불려나간 도명 스님(사교과)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스님들의 운동회에 아이들이 끼어든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로 스님들은 운동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돼 있었다. 대교과 도현 스님은 "운동회에서 스님들과 함께 뛴 아이들이 청암사를 마음의 고향으로 느끼고 다시 찾아온다"며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즐기며 포교도 하니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스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다. 증산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태극권 동아리 스님들이 태극권을 선보였고 운동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다. 청암사 태극권 동아리는 올 8월 전주에서 열린 태극권 국제 교류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컵을 받았을 정도의 실력이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명상음악을 배경으로 8식, 16식, 24식의 태극권 동작을 선보이는 스님들의 모습에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빛을 빛냈다.

종이꽃으로 장식한 고깔까지 운동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풍물놀이를 선보이자 여기저기서 추임새가 흘러나오고 어르신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스님들과 어우러졌다.

증산초등학교 전제훈 교장은 "아이들이 스님들이 함께 하는 걸 무척 좋아한다"며 "스님들과 아이들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친해지고 잘 어울려서 금방 하나가 된다"고 말했다.

증산초등학교의 운동회는 유명한 마라톤 감독인 정봉수씨를 배출한 마라톤 명문답게 증산초등학교에서 청암사까지 약 8㎞ 구간을 달리는 마라톤과 증산면민 노래자랑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가을 운동회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청명하고 맑은 하늘, 휘날리는 만국기, 점심시간 엄마와 함께 까먹던 찐 계란이 그것이다. 증산초등학교의 운동회엔 청암사 학인스님들의 잿빛 승복과 맑은 웃음이 더해지고 있었다.

김천=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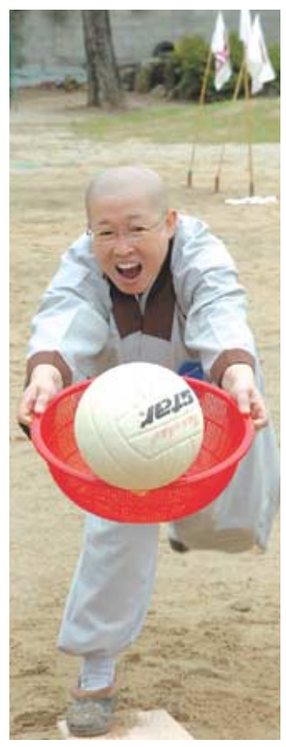
"스님! 왜 그렇게 못하세요, 히히…"



몸은 여섯, 마음은 하나



눈은 가렸지만 '너'를 업으니 잘 보이네!



어! 받아야 하는데…



농악놀이에 맞춰 학부모들도 흥겹게 춤을 춘다.

경기에서 이긴 학인스님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밀납양초 (Bees Candle) 2005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요.

• 1호 59中 × 18cm 約 연소시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約 연소시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約 연소시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約 연소시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 ~ 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 (1 ~ 4호 밀납초 받침대)



야광 용초
뒷줄 6개 = 10-1 70中 × 35 cm
앞줄 5개 = 10-2 56中 × 26.5 cm
그 외 모든 양초 제조 판매합니다.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한국불교를 세계로

■ 미리보는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10월 18일 개막하는 2005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이 <직지심경>을 비롯한 불서 전시, 조선불화전, 참선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우리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우창, 이하 조직위)는 세계 110여 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문화로 불교를 꼽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엔터 코리아(Enter Korea)'를 주제로 도서전과 문학·학술, 공연예술, 전시, 스페셜 프로젝트 등으로 나눠 치러지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미리 살펴본다.

불서·불화展
참선체험 등
문화행사 마련

● 도서전

한국 출판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간터널: 한국 출판의 역사'에서는 <직지심경>과 <팔만대장경> 등 우리나라 출판문화를 이끌어 온 불경(佛經)간행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지눌의 선사상> <깨달음의 거울-선가귀감> <Korean Buddhism> 등의 불서가 포함된 '한국의 책 100'과 <삼국유사> <사찰 꽃살문> 등이 포함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 등에서는 1천800여 권의 책이 전시될 예정이다.

● 전시회

10월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미술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우리 불교회화와 불교공예품을 선보이는 '영혼의 여정-조선시대 불교회화전'이 마련된다. '지옥'과 '정토'라는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아미타불회도와 사불회탱, 감로탱, 시왕도 등 17~18세기에 제작된 30여 점의 불교회화와 공예품이 전시된다. 지옥에서 정토로 이르려는 민중들의 염원과 수행 과정을 조선불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9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프랑크푸르트 통신박물관에서는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구텐베르크박물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의 옛 인쇄문화전'이 열린다.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과 동서양 금속 활자본, 인쇄기계, 전통 한지의 제작과정이 선보인다.

● 스페셜 프로젝트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선(禪)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선: 한국의 정신'. 시립공예박물관에서 두 차례의 강연이, 도서전이 열리는 주빈국과 이벤트홀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참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번 선 특별전이 유럽인들에게 생소한 선사상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고, 신비감으로만 남아 있던 우리나라 종교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0월 19~23일 프랑크푸르트 메세 주빈국관과 메세 카페테리아에서 열리는 '한국 음식 축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차와 사찰음식도 맛볼 수 있다. www.enterkorea.net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최고기업 일군 '인과법 경영철학'



카르마 경영 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 김형철 옮김 | 서돌 | 1만2천원

'경영의 神' 日 교세라 그룹 이나모리 명예회장
"원리원칙 충실하면 결과 따라온다" 믿고 실천
버블붕괴·장기불황에도 끄떡없이 사세 확장

업(業)이라고도 하는 카르마는 생각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즉, 인생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며,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생각을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이 펼쳐지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잘 될 리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이 낳은 대표적인 성공기업가 교세라 그룹 명예회장 이나모리 가즈오(72)는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도 적용해 왔다.

중학 입시에 실패한 뒤 결핵까지 걸린 그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정말 난 되는 일이 없어' 그는 대학입시도 1차에선 실패하고 2차로 지방대에 합격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불황기라 지방대 학벌로선 취직이 힘들었다. 결국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그나마 가족 간 경영권 다툼만 벌이고 월급도 제때 안 주는 회사였다. 회사의 장래가 없다고 입사 동기들은 하나 둘 떠났고 결국 그만 남았다. 설상가상으로 결핵까지 앓았던 그는 그때 읽은 책 한 구절을 가슴에 새겼다.

"우리 마음속에는 재난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있다. 병에 걸리는 것은 병을 끌어들이는 약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미친 듯 연구에 몰두했고 최첨단 세라믹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차린 그는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홀로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쳤다. '경영의 신(神)'으로 불리는 이 책의 지은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인생 전반부의 모습이다.

회사 생활을 청산한 그는 27세에 자본금 300만엔(3천만원)으로 '교토 세라믹(교세라로 명칭 변경)'을 설립했다. 그는 이후 각고의 노력끝에 '교세라'를 반평생에 걸쳐 세계 100대 기업으로 일궈낸 후 올해 7월 모든 것을 훌훌 털어 버리고 탁발승이 됐다.

또 현직 이사들을 설득해 퇴직금을 적게 받고, 그나마 받은 퇴직금 60억원마저 대학 등 교육기관에 희사하기도 했다.

해고가 없는 기업을 일군 바람직한 기업가인 그의 경영원칙은 매우 단순했다. 바로 원리원칙에 충실하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순진한 믿음이었다. 이 고지식한 경영원칙은 교세라를 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 후 장기복합 불황까지 견뎌내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책은 진정한 기업가의 삶과 경영에 대한 솔직하고 담백한 철학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원리원칙에 따른 경영의 한 예로, 일본 기업들이 한창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거품 경제 때 일화를 들려준다. 당시, 많은 일본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전매하는 방식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었는데, 교세라에도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해보라.' 라는 유혹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토지를 좌지우지해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것은 위험하고도 헛된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땀 흘리며 스스로 번 돈이 진짜 이익이다.'라는 원리원칙이 있었고, 그 원리원칙에 따른 결정은 일본에서 거품이 꺼진 후 수없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데 반해, 교세라만큼은 굳건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개인이나 기업이 쉽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원리원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어쩌면 요령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보며 걷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확고한 철학에 근거한 행동의 결과는 결코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게 그의 경영 지론이다. 그러므로 그는 후배 경영인들에게 이 책을 통해 순수하고 맑은 마음과 이타심은 인간으로서 경영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충고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선비정신으로 본 코리아 노블리스 오블리제



명문종가 사람들
이연자 지음
랜덤하우스중앙
1만8천원

<명심보감>과 <주자가례> 그리고 전통문화연구가인 이연자씨(한배달 우리차문화원장)의 <명문종가 사람들>이 가진 공통 키워드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충·효·예(忠·孝·禮) 또는 선비정신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지은이가 최근 17개월 동안 탐방한 우리나라 종가 19곳의 예법과 그들 나름의 독특한 삶의 모습과 정신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명문 종가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그 안에 깃든 전통 문화를 섬세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종가의 내림음식과 차, 복식 등의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고택의 아름다운 모습을 글과 사진으로 담았다.

이 책은 직접 발품을 팔아 완성한 테마여행 안내서이기도 하다. 독자들이 이 책을 들고 직접 종가를 찾는다면 종가의 발자취를 백배 더 느낄 수 있다. 만석꾼 집안이었던 밀양 손씨 종가에서는 전통 7첩 반상을 받을 수 있고, 전주 이씨 이국손 종가에서 붓글씨로 쓴 가훈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으로 거듭난 오리 이원익 정승의 종가에선 청백리 정신을 배울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황희 정승의 청백사상을 가풍으로 여겨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해 검소하고 꼿꼿하게 종가를 지키는 황씨 종손의 모습도 소개돼 있다. 또 백성들이 힘들여 농사지은 쌀 한 톨도 축내지 않았던 암행어사 박문수의 뜻을 기려 떡 없는 제사를 올리고 있는 후손들의 고집에는 오히려 읽는 이의 머리가 숙연해 진다.

이연자 원장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을 꿋꿋이 지키는 선비정신을 되살려 진정한 한국적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신분일수록 도의상의 의무가 따름)를 널리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노병철 기자

■ 새로나온 책



■ **<무경계>**(켄 윌버 지음, 김철수 옮김, 무우수, 1만2천원)="우리 스스로 정신과 신체 사이에, 혹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자신의 정체감을 제한해 왔다. 이 경계선을 하나씩 제거할 경우 본래의 경계 없는 자기, 무경계(無經界)를 실천할 수 있다."

인류의 영원한 의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 동서양 사상을 접목한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의 창시자인 미국 철학자 켄 윌버는 불교의 공(空) 사상과 서구의 과학, 신학, 경제학 등을 두루 아우르며 이 의문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생화학을 전공하던 윌버는 '세계의 지혜 전통'을 탐구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일본 선사와 티베트 린포테 등의 지도로 수행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동서양의 심리학을 통합시키는 독창적인 학문세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과학과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통합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 **<그대 자신을 알라>**(라마나 마하리쉬 지음, 나타라잔 엮음, 김병채 옮김, 슈리크리슈나다스 아쉬람, 1만원)="무엇이 죽음입니까?"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망각하는 것이 죽음이다."

남인도의 성산(聖山) 아루나찰라에서 깨달음을 전파했던 바가반 슈리 라마나 마하리쉬(1879~1950)의 법문집. 마하리쉬가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 30여 편을 가려 담았다. '구루' '죽음 체험' '의식의 흐름' 등 각 주제에 대한 마하리쉬의 법문을 싣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덧붙였다.



■ **<영혼의 음식>**(이도경 지음, 소금나무, 1만원)=명상요리 연구가이자 건강관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도경씨는 음식이란 단순한 육체적 먹을거리를 넘어서 '영혼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식과 자연식을 바탕으로 한 '소울푸드(soul food)'를 통해 심신영(心身靈)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무엇을 섭취하느냐'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이끌고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식뷔페 조리실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도 소개한다.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옴마니 반메훔 건강밸트

축복의 밸트!
성공의 밸트!
지혜의 밸트!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된다는 옴마니 밤매홈 건강밸트가 불교 법구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밸트다. 또한 일반밸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밸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맬토에너지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죽으로된 고품격 고급밸트로 만사 형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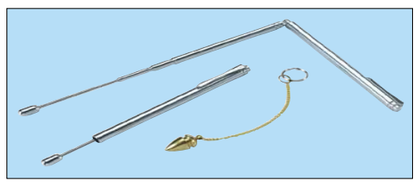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53-12-102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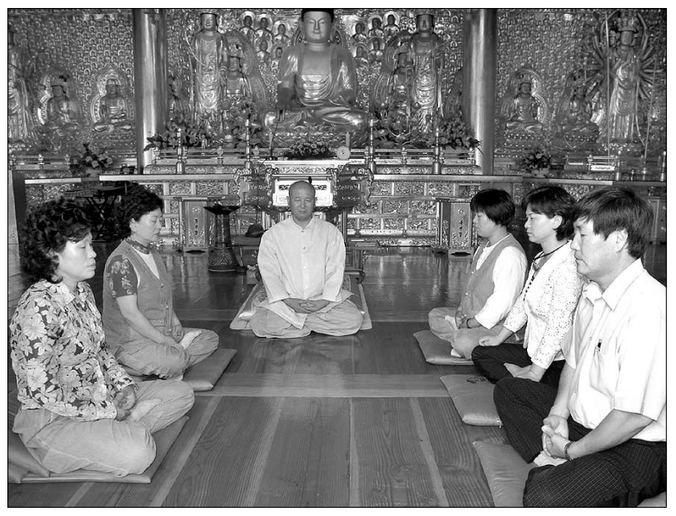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농협053-12-102911

염불로 생각 이전의 자리 확인

'하고 싶은 수행' 전문가에게 묻다 ⑦
- 염불선 수행


덕산 스님의 지도하에 재가불자들이 염불선 실참을 하고 있다.

올해 불교에 갓 입문한 김난수씨(56 • 청주 율량동). 선(禪) 수행은 하고 싶은데, 시작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었다. 주야장창 가부좌를 틀고 앉은 불자들의 모습에서 아연실색했기 때문. 선방에 흐르는 침묵은 김씨의 답답함을 키웠고, 도대체 염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도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간화선은 어렵지? 그럼, 염불선 수행을 해봐!" 순간 귀가 솔깃했다. '염불선? 이게 뭐야!'

9월 10일, 서울 대전 등지에서 온 5명의 불자들이 염불선 수행을 20년 넘게 지도하는 충북 청원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을 만나 궁금증들을 쏟아냈다.

#탁한 업 녹이는 맑은 에너지 파동

혜은사에서 <금강경 오가해> 강의를 듣고 있는 김광문(56 · 청주 봉명동)씨. 2년 전 아내와 사별한 김 씨는 아내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웠다. 하지만 김씨는 염불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가 서방극락정토에 환생하기를 바랐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미타 부처님에게 무작정 매달리는 허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 '생각 이전의 마음자리를 여의지 말고 염불하라'는 염불선 수행을 알게 되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염불과 염불선의 차이는 무얼까, 그간 내가 해온 염불 수행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였어요."

덕산 스님의 조언이 이어졌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먼저 염불과 염불선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 염불은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 등의 형상에 마음을 두는 수행법이에요. 선은 생각 이전의 그 자리, 즉 우주의 진여 당체를 확인하는 수행이죠. 달리 말하면 선과 염불의 차이점은 '본말(本末)'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본래 주인공 자리인 진여(眞如), 생각 이전의 자리를 마음에 두고 염불할 때 선이요, 상(相)에 두고 하면 염불이 돼요."

김씨가 다시 염불선이 재가자들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염불선은 재가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요. 염불 그 자체는 맑은 에너지의 파동이기에 우리 몸에 맑은 에너지를 발현시키죠. 이 에너지는 과거로부터 익혀온 탁한 업을 녹입니다. 그 맑은 파동이 바로 자비광명이에요. 염불선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자비광명이 발현되죠. 그 기운이 일상으로 연결되면, 가정과 사회가 맑고 밝게 되는 거지요."

'삼법인' 이해가 필수

지난 98년부터 새벽마다 염불선 수행을 해온 이수동(44 · 서울 성북구 석관2동)씨가 질문을 이어 받았다.

"염불선 수행을 하니 인간관계는 물론 세상사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얽혀있음을 깨닫게 됐죠. 염불선 수행에는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연기법을 비롯해 삼법인(三法印)의 이해가 필수이에요. 특히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도리를 바로 알아야 해요. 이 가르침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 공(空), 불성(佛性), 진여(眞如), 법성(法性), 주인공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마음'이라 하는 거죠. 염불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아가 곧 우주의 근본 진여당체 자리임을 깨닫고 이 자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94년부터 염불선 수행을 해왔다는 이향순(47 · 청원군 남일면 고운리)씨가 "진여당체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진여는 공 무아 불성 등으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여를 문자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중생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 거죠. 진여 당체는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몸의 기관을 통해 밖의 경계들과 접촉하죠. 그러면서 분별심을 일으키고 번뇌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진여 당체는 바깥 경계와 접촉이 일으키기 이전의 자리이에요."

#빠른 속도로 외어야 번뇌 낄 틈 없어

염불선 수행을 1년째 해온 진순자(54 · 대전시 중구 대사동)씨가 그간 염불선 수행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실 염불선 수행은 쉽지가 않아요.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정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한두 번 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의 명호를 그대로 길게 외면, 틈이 생기죠. 깊은 삼매체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본래부처'를 의심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광문씨가 일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염불선 수행법에 대해 물었다.

"예를 들어 잠 잘 때는 아주 편안 자세에서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생각 이전의 자리가 본래 주인공 자리임을 알고, 냐 마음에 본래 갖추고 있는 불보살의 명호를 처음에는 10분씩 외세요. 다만 수월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면, 우선 명호를 줄이세요. 가령 관세음보살은 '관음', 아미타불은 '아미타'로 외세요. 또 관세음보살을 욀 때는 '관음! 관음!'이라고 소리만 내지 말고, 마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부르세요."

글 · 사진/청원=김철우 기자

▮ 염불선 수행 포인트

'염불하는 이 놈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 염불선의 화두다.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외면, 무념의 경지에서 '내가 부처(自性彌陀)'임을 알게 하는 염불선 수행법의 핵심이다.

염불선 수행할 때 주의할 점은 상기병이다. 가령 누워서 눈을 감고 염불을 빠르게 욀때, 염불소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곧장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이 나고 어지럼증세도 생기며, 심지어 구역질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는 곧장 쉬어야 한다.

▮ 덕산 스님은



덕산 스님(사진)은 청화 스님(2003년 입적)의 염불선 수행 전통을 잇고 있는 차세대 염불선 수행 지도자다. 스님은 87년 청화 스님으로부터 염불선 수행법을 배운 후, 99년 8월부터 3천일 '관세음보살 고성(高聲)염불' 용맹정진을 회향하기도 했다. 82년 월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덕산 스님은 청원 혜은사를 중수, 염불선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043)297-5115. www.hyeunsa.or.kr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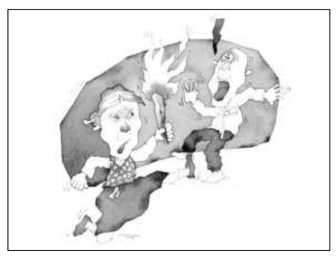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6> 노파가 암자를 태우다

고려의 진각혜심(1178~1234) 국사가 편집한 〈선문염송〉은 1400개가 넘는 공안을 수록해놓은 선종사 최고최대의 공안집이다. 중국선사들에 의해 편집된 〈벽암록〉 〈종용록〉 〈무문관〉 〈송고백칙〉 등 많은 종류의 공안집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100칙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그 양에 있어서도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흔히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진각 선사 열반이후 등장한 공안을 빼고는 모든 것을 망라해놓은 '종합백과사전 공안집'이라고 하겠다.

〈선문염송〉은 한국 선가의 저력인 동시에 자부심이다. 그리고 모든 살림살이의 결집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신라의 도의 국사에게 백장 선사가 말했다는 '마조의 불법이 모두 해동으로 가 버렸다'는 표현처럼 조사선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해동 조계종의 긍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 염송집의 마지막은 '고목(枯木)'이라는 화두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맨 끝이라는 위치상의 의미 부여와 이야기 자체가 지니는 흥미진진함으로 인해 예로부터 많은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보통 '파자소암(婆子燒庵 노파가 암자를 태우다)'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옛날에 한 노파가 토굴에서 공부하는 납자를 20년동안 시봉하였다. 열심히 밥도 짓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 납자가 공부를 잘하여 자신의 눈을 열어주고 제도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봉공덕으로 인한 탓인지 노파에게 먼저 잔잔한 공부의 경계가 나타났다. 그 납자를 시험해보고 싶은 장애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날은 밥을 딸 편으로 보내면서 일렀다. "스님을 꼭 껴안으면서 '이 때는 어떠합니까?' 하고 물어보고는 그 대답을 나에게 전해다오."

딸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공양을 마치자 슬며시 그 납자에게 안겼다. 그리고는 교태를 떨면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물었다.

"스니임~~!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요?"

뜻하지 않는 돌출행동을 만났지만 납자는 평소의 담담한 어조로 일렀다.

"마른나무(枯木)가 찬 바위에 기대니, 한겨울에도 따스한 기운이 없도다." 물론 마른나무는 그 딸을 가리키고 찬 바위는 자신을 가리킨다. 이러던 경지를 일러서 선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고목선(枯木禪)이란 부정적 표현을 쓴다. 정(情: 마음)이 끊어지면 공부 역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 딸은 액면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했다. 노파는 공부경지를 고목선으로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이에 그만 화가 나서 "내가 이십년동안 속인을 시봉했구나" 통탄하면서 일어나 암자로 달려가서 그 납자를 쫓아내고 토굴 역시 불질러 버렸다.

어설픈 공부경계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20년 묵은 납자를 들었다 놓았다 해봐야 그것 역시 하잘은 중생경계에 불과하다. 물론 고지식하게 원론만을 죽어라 고수한 그 납자에게 큰 허물은 있다. 젊은 딸에게는 그 답변이 맞다. 하지만 딸에게 한 법문을 그 어머니는 자기에게 한 법문으로 이해했던 것이 잘못이다. 만약 그 어머니가 와서 안겼더라면 천동함걸(1118~1186) 선사처럼 당연히 그 납자도 이렇게 답변했을 것이다.

20년동안 토굴에서 납자 시봉한 노파 공부경지 시험하곤 실망감에 불 질러

"한 줌의 버들가지를 거둘 수 없어서 바람과 함께 옥난간에 달아두노라."

염송 제1칙은 부처님 탄생에 관한 것이니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 배열자체가 조사의 법맥 순으로 돼있으니 시대별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인공을 알 수 없고 시대도 애매한 공안들은 어찌할 것인가? 당연히 맨 뒤로 돌려지기 마련이다.

이 부분에 이르면 편집자의 안목을 백퍼센트 반영시킬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게 된다. 처음 못지않게 마지막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파자소암'이라는 마지막 공안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공안을 발견하게 된다. 진각 선사께서 '파자소암'을 〈선문염송집〉 맨 끝에 두신 까닭은?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세상을 맑게 하는 방송 (주)불교TV가
부산 · 영남지역에서 활동하실 총괄책임자를 모십니다.
1. 담당업무 : 교계 뉴스취재 및 광고영업, 고객관리
2. 고용형태 : 연봉계약직(성과급제 협의 가능)
3. 직 급 : 국장 또는 부국장
4. 모집인원 : 0명
5. 모집마감 : 2005. 9. 30(금)
6. 자격요건 : 부산 거주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1) 부산지역 불교계 단체(불교학생회, 청년회, 대불련 등) 활동 경력자
2) 뉴스취재 및 광고영업 경력자 우대
7. 제출서류 :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자기소개서,
교계활동증명서(사찰주지스님 확인서), 영업활동 계획서
8.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문의 : 02-3270-3354 불교TV 총무부)
1) 우 편 : (151-820)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45-2 불교TV 총무부
2) 이메일 : kimdj1@empal.com
9.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2차 - 임원면접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Btn 불교TV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5〉



나는 얼마나 천한 사람인가

네팔을 여행하던 중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가게 앞에 개 한 마리가 죽어 있더랍니다. 친구는 가게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만 할 뿐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죽은 개는 여전히 가게 앞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다시 가게 주인에게 어서 개를 치우라고 하자 그 주인은 그제야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시신이나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일은 천민들이나 하는 짓이오. 내 손으로 저런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없소. 그러니 천민이 와서 치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2005년 현재 지구상에 아직도 이렇게 신분의 귀천이 사람들 의식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거늘 부처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시던 때야 오죽 했겠습니까?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들은 브라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담당하던 계층이었기에 그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거리로 들어서자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어이, 거기 까까중! 잠시 서보게. 천한 녀석아, 거기 서라니까!"

부처님의 승단에는 천민들도 출가하여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차별의식에 철저한 이들의 눈으로 볼 때 부처님조차도 천민들과 어울렸으므로 부정을 탄 더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가급적 세상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 부처님의 신조입니다만 부처님은 뭔가 중요한 것 하나를 그에게 일러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그 바라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을 천한 사람이라 부르는지 알고나 있소? 무엇이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지 알고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오?"

부처님의 차분한 힐난조에 바라문은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천민들은 상대하지도 말라고 하였기에 덩달아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진정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독하고 시기심이 많고 소견이 그릇되어 남 속이길 잘 하는 사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고 생명에 자비심이 없는 사람, 마을은 물론이요, 도시들을 파괴하거나 약탈하여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사람, 빚을 져놓고도 돌려달라고 독촉 받으면 '내가 갚을 빚은 없다'라고 발뺌하는 사람,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길가는 사람을 살해하고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자신이나 남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때로는 폭력을 써서 또는 서로 사랑에 빠져 친지나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 자기는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나이 들어 늙고 쇠약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천한 인간의 조건 짊어가다보니 부끄럽네요
당신은 이 조건 가운데 몇가지나 걸리십니까

제 부모나 형제 자매, 혹은 배우자의 어머니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유익한 충고를 구할 때 불리하게 가르쳐주거나, 불분명하게 일러주는 사람, 나쁜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그 일을 숨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남의 집에 가서는 융숭한 환대를 받으면서 손님에게는 대접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에 빠진 사람, 남을 화내게 하고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아십시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짓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법입니다."

('숫타니파타'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24-133쪽)

하나하나 짊어가다 보니 제 자신이 바로 천한 인간의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건 가운데 몇 가지에 걸리는가요?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추석연휴 관계로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가 한 주 쉬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일체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숨어있는 선지식'으로 불리는 연수 스님의 법문을 소개합니다.

연수 스님은 1946년 부안生으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농대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불교에 매료된 스님은 수많은 불서를 접하고 결국 1971년, 백양사 서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합니다. 송광사에서 3년 결사를 하기도 한 연수 스님은 30년 넘게 오로지 선방과 토굴에서 정진을 이어왔습니다. 치열한 정진력과 경전을 두루 꿰는 해박함으로 은사 서옹 스님의 인정을 받았고 수좌들의 존경까지 받고 있습니다.

봉화 태백산의 토굴 무학대에서 수행중이던 연수 스님은 지난 송광사 결사때 인연을 맺은 르노 뇌우바우어(Renaud Neubauer) 교수(에쿠아도르 끼토시 산 프란시스코 대학교, 동양학) 초청으로 남미 에쿠아도르 현지인들에게 남북방 불교와 선을 가르치기 위해 지난 7월 출국했습니다.

다음은 연수 스님이 6월 19일 횡성 죽림산사(회주 선행)를 방문했을 때 불자들의 즉석 질문을 받고 한 법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
일체가 다 공부꺼리…관찰은 과정이자 완성

지상 백고좌

연수 스님

(조계종 수좌)

▲ '똥막대기' '끽다거' 이런 화두가 나온 선사스님들의 일화를 상기할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선사들 사이에서는 다 통한다고 하는데 깨우쳐진 건지 같은류의 공감대가 있어서 깨친 것으로 봐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두를 선택할 때 첫째조건이 그 스님들이 완벽하게 깨친 분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똥막대기다"라고 했습니다. 똥은 개념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운문스님은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무슨 뜻으로 똥막대기라 했을까, 왜 똥막대기라 했을까 의심해 들어가야 합니다. 화두를 든다고 했을 때 똥막대기에 낙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똥막대기라 한 운문 스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화두가 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붙어야 해요. 수행을 해 경지가 깊어지고 지혜가 나와 법거량을 위해 큰스님을 찾아갔다고 할때 적당한 교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화두를 타파한다는 것은, 즉 인정이 되고 교감이 된다는 것은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똥막대기'라고 말한 운문 스님이 계시면 좋지만 운문 스님이 안 계시니까 대타로 어떤 스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 스님이 운문 스님 정도의 경지가 돼 있느냐 아니냐가 또 문제가 되겠지요.

생활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화두'로

▲ 천여년전에 만들어진 화두가 현대인들에게도 의심이 날 수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맞는 화두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동쪽 산이 물위를 지나간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스님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스님이 철저히 깨친 분이라고 믿을 때 그 화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동산수상행이라는 화두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화두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수행의 가닥을 화두쪽으로 잡아서 수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할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선사가 말하고자 한 뜻이 뭐냐? 화두에 '왜'자가 붙어야 해요. '무' '동산수상행', 이런 말을 왜 했는가가 화두의 본뜻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문제, 자기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화두로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두의 본령은 부처님의 깨친 경지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회통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연을 했다고 할 때, 왜 내가 실연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고 떠났을까? 이게 그 사람에게는 절박한 문젭니다. 그럴때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감정과, 떠난 사람과의 관계





번뇌 자리 바로보면 그 자리가 바로 지혜

의 있는 그대로 모습 등을 면밀하게 살필 것 같으면 인과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과 문제를 철저히 비추면 무상 무아의 삼법인에 돌입이 됩니다.

▲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는 유명한 말인데 그 참뜻을 알고 싶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뻔한 상식을 가지고 진리라 한단 말이에요. 깨친 경지에서 나온 말이지요. 그런데 도인들이 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경지와 범부들이 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자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다 하는 일을 우리는 제대로 못한다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같지만 실상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을 '정자각자(正自覺者)'라 부릅니다. '바르게 스스로 깨친 자'라는 뜻이지요. 부처님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살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치기 전에 공부했던 것들은 인위적으로 가정해서 개념적으로 설정해서 그 이치를 깨쳐가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이 이념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궁극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지요. 스스로 바르게 깨쳤는데 무엇을 깨쳤는가 하면, 과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친 것입니다.

결국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제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뜻을 알려면 실제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생 알려면 현재를 보라

▲ 죽은 후 내세가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습니다. 불교에서의 내세관은 어떤 것입니까?

–불교에서는 인과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는 것이 기본사상입니다. 내가 한 것을 남이 대신 받을 수 없고 남이 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인과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과를 말하지만 상식으로 아는 것이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인과를 제대로 알면 삶이 확실히 바뀌게 됩니다.

사후문제를 뭔가 확고하게 결론내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말씀조차도 지혜로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잘 살펴서 이해가 되면 믿으라고 했어요. 사후문제도 그렇게 봐야합니다.

부처님가르침은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현실에 있는 것이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생을 알려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 자성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팔정도수행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여덟가지로 살펴서 바르게 정진하면 깨칠 수 있습니다. 칠불통계게의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온갖 악을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그런 가운데 자기 마음을 잘 맑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와 팔정도는 같은 가르침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양심있고 도덕적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더 요구하는 것은 '자정기의(自淨其意)– 그 마음을 맑혀라, 수행하라'이지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 철저히 깊이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맑혀라.

맑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 철저히 해서 '산은 산 물은 물'처럼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 쉽지 않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수행입니다.

팔정도의 첫번째가 정견(正見), 바른 견해입니다. 정견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핵심사상이라든가 수행자세라든가 모든 것이 정견을 통해 정립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일곱가지 행(行)은 자연스럽게 더불어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재가자들은 수행에 장애(?)되는게 많습니다. 부모 자식 남편 등 가진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속 화두드는 연습하세요"

깨침의 핵심, 있는 그대로 미세하게 살피는 것

생활속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요즘 재가불자들도 화두선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게 보통이지요. 시간을 정해 절에 가서 할 때도 있고 자기집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어지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화두를 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요.

나도 선방을 10여년 다니고 토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생활이라는 것이 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기간을 정해 수행하니까 해제해서 밖으로 나오면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로 앉아서 수행하다 보니까 좌선으로만 수행하려는 심리가 은연중 있어요. 내게도 뼈저리게 있었어요. 그만큼 집착한다 이겁니다. 좌법에 집착해 버리면 좌법에서는 공부가 되는데 좌법을 풀고 다른 행위에서는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어렵긴 하지만 행주좌와(行住坐臥) 관계없이 막 들어가는 방법을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대념처경>을 보면 행주좌와가 다 공부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사 일체처 일체심, 일체 어느 곳에 어느 때 있든지 모두 수행거리라 했습니다.

내게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안다, 또 번뇌가 계속되면 계속된 줄 안다, 번뇌가 멈췄으면 멈췄음을 안다, 번뇌가 멈춰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줄을 안다, 순서가 번뇌가 생겼고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가 일어나서 선정경지에 들었다, 번뇌가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서 없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왜 잘 못 본 것이냐 하면 번뇌가 없어서 고요하면 고요한 상태에서 고요한 줄 안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번뇌가 일어날 때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안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위빠사나의 관(觀)이거든요.

알음알이 돌리면 그대로 지혜

번뇌가 있고 없고는 상황적이라. 끝까지 남는 것은, 있고 없는 상황을 여실히 관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쳤다고 하면 거기서 깨치는 것이지 번뇌가 없어서 고요한 것을 깨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싶고 뭔가 경지를 얻고 싶고 그것을 희구하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정 과정에서 살펴가는 수행자의 마음마음씀에 촘나촘나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 알아차리되 알아차리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미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건듯건듯 봅니다. 수행자가 마음을 더욱더 미세하게 관찰하는 그것이 정진입니다. 정밀할 정(精)에 나아갈 진(進)자. 정진이라는 것이 오래 앉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앉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정밀하게 미세하게 살피려고 하는 각오, 원력, 의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정사유(正思惟)입니다.

그런 사유를 통해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려 하고 결행하려는 의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고요한 데서 화두를 들것이 아니라 잘 안 되더라도 일상생활속에서 화두를 잡도리하세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不生不滅)'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생이라는 것은, 미세미세하게 들어가서 내마음이 탐진치가 생하는 모습을 정확히 100% 미세하게 살펴서 촘나생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깨쳤을 때 그것을 불생이라고 하고 무생이라고 합니다. 불생이라고 해서 태어남이 없다가 아니라 태어남을 너무나 정확하게 봐버리니까 그 자리는 생(生)이라고 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서 생각들이 움직이지만, 최극미세하게 살펴서 부처님같은 경지가 되어 그 자리에서 살펴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마음이 생하는 모습이 생한다 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연기돼 있더라 이거지요. 연기도리를 깨친 것이지요. 연기도리를 깨치니까 그 자리가 무생(無生)이고 무아인 것을 알겠고 무상(無常)을 제대로 알겠어요.

유식불교에서 '전식성지(轉識成智)'라는 말을 써요. 식(識)을 돌려서 즉, 알음알이를 돌려서 바로 지혜를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대승에서 말하는 '번뇌 즉 보리'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번뇌를 벗어나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번뇌 그 자리를 바로 보면 그 자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용맹심을 가지고 탐심을 관찰하면 그 탐심 무더기가 그냥 미세하게 쪼개집니다. 물리학세계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분자를 쪼개 완전히 미세하게 살펴보니까 허공이 되어버려요. 허공이 티끌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은 줄 알았는데 물리세계에서 작은 것을 확 펼쳐보이니까 무한한 허공이 있어요.

그것이 마음수행으로도 연결됩니다. 내가 관찰하는 힘이 미약한 것이 문제지만 알아차리는 힘 그게 지혜, 즉 반야예요. 우리에게는 원래 반야지혜가 있어요. 살필 수 있는 마음, 그냥 해가는 마음뿐 아니라 해가는 상황을 다시 비추어볼 수 있는 마음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무변광대(無邊廣大)라 했는데 마음가운데는 무변한 영능(靈能)이 있어요.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에 팔식도 칠식도 육식도 다 있습니다.

탐심을 내어 탐심이 일어나 탐심을 살폈다 할 때, 그 탐심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행관에 의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깨치고자 하는 원력이 있고 선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살펴가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날 때, 아 잘못되었다 반성할 수도 있고 그 마음자체를 수행그릇 삼아서 다음 촘나에 그것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인과 철저히 비추면 삼법인 돌입

▲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 박사가 바르도 상태(티베트어로 '중간상태'란 뜻. 죽음과 환생사이에 생겨나는 중음의 상태)에서 죄업이 많으면 업식 때문에 밝은 빛을 못 따라가기에 평소에 밝고 맑게 살아야 바르도 상태에서도 좋은 빛을 따라갈 힘이 생긴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강 스님 법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명한 율사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장면에 입회한 사람이 여럿이었는데 누더기 입은 수좌가 있었대요. 율사스님이 숨이 막 넘어가려는데 수좌가 벽력같이 소리를 쳐요.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자기로 봐서는 좋은 경계로 가는 판인데 그만 깨어나게 되어 그 수좌한테 호통을 쳐요. "내 좋게 가는 길을 왜 방해하는가?" "스님, 어느 경계를 보셨습니까?" "불보살이 나와 영접하려는데 네가 방해를 해서 못 갔다." 이 수좌가 "지금 스님은 돌아가시면 저 아래 있는 까치집에 태어납니다." 말을 맞춰보니 다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헛공부를 했다고 율사스님이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경계에 속지말고 열심히 해야 되지, 적당히 해서 되는게 아니라는 뜻으로 하신 법문입니다. 평소 잘 해야 된다 라는 말은 맞아요. 평소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경계가 나옵니다.

정말로 극미세 관찰해서 부처님 깨달은 경지인 무상의 도리를 깨쳐서 그야말로 완벽히 해야 마치는 것이지 그전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좋다는 경계도 실은 업(業)으로 오는 겁니다. 선어록에 '부처가 감응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무상(無常)으로 보라' '어떤 경계가 나오더라도 삼법인(三法印)으로 해석하라'가 나오는데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 · 사진/죽림산사=이경숙 기자


수좌계에서 '숨어있는 선지식'으로 통하는 연수 스님.


죽림산사에서 연수 스님은 즉석 질문을 받고, 일상에서의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수행을 하라고 강조했다.

전국지역 직판장 및 딜러 모집

조상님들에 대한 孝 를 다할 수 있는 기회!!

부패, 악취, 벌레가 생기지 않는 신개념 진공후 질소충천 그린함!!




실용신안등록 제0359899호


의장등록 제0371274호

고인의 영원한 안식처 그린함의 특징

- 황점토에서 추출한 최첨단 신소재를 이용하여 용기가 변형되지 않고 영구히 보관
- 신소재를 이용한 마개부의 완벽한 진공과 질소 충전 실현
- 완벽한 밀폐로 산화 및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유골이 썩지않고 변질되지 않음
- 자연친화적이며 가정의 한 곳에 모셔도 냄새나 불쾌감이 전혀 없음
- 열과 습기에 특히 강함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말사 백 화 사
소속법인 (주)뉴그린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1165-2 / 문의전화 031)886-043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40-4 / 문의전화 031)416-2088

문화단신

대한민국종교예술제
(9월 21일~10월 14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7개 종교 화합의 장인 제9회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9월 21일 미술제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9월 21~26일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린 미술제에 이어 음악제는 10월 14일 KBS홀에서, 영화제는 10월 5~9일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다.

원음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시작할 음악제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성직자 4명으로 구성된 성직자 중창단 등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영화제에서는 '초승달과 밤배'를 개막작으로 6작품이 상영된다. 무료로 관

서윤석 선생 서예전
(9월 29일~10월 5일)



통연(通衍) 서윤석 선생의 환갑기념 서예전 '반야의 향기'가 9월 29일~10월 5일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12개의 만다라, 석가여래행족송 병풍, 2m에 달하는 석가여래성도기 병풍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회에 맞춰 발간된 <반야의 향기>는 반야만다라, 석가여래성도기, 묘법연화경, 석가여래행적송, 찬불송, 금강경 오가해, 육조단경 등 300여점을 담았다. (02)2214-6757

'도불유희' 공연
(9월 29일~10월 1일)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 출생에서부터 전법선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김옥련 교수(경성대 무용과)의 춤과 소리꾼의 창, 사물패 등으로 되살아난다.

2005 APEC 아시아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문화축전행사 참가작 '도불유희'가 9월 29일~10월 1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도불유희'는 무용과 음악 사극의 양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051)628-0338

학문 · 업적 총체적 조명

나카무라 하지메 7주기 추모, 제자 20명 '진리의 수첩' 출간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선생(1912~1999 · 사진) 서거 7주기(10월 10일)를 기려 9월말 출간될 <진리의 수첩-총특집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 집필에 한국인 오진(悟震) 스님(동방학원 강사)이 필자로 참여해 화제다. 불교 및 인도사상 연구에 평생을 바치며 단행본 100여권과 논문 3000여 편을 남긴 나카무라 선생은 세계불교학계의 대표적인 석학이다. 특히 비교사상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한일 불교학 교류에도 앞장서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한국 오진 스님도 집필
'나카무라 학술상' 시상

오진 스님이 집필에 참여하는 <진리의 수첩…>은 나카무라 선생의 사상을 조명한 '인물사전'이다. 불교를 잘 모르는 이들도 선생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카무라 선생이 창립한 동방연구회와 제자들이 주축이 돼 기획했다. 이 책의 집필에는 나카무라 선생의 수제자인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동경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제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진리의 수첩…>은 '원시불교' '인도대승불교' '비교사상' '공(空) 사상' '동아시아 불교' 등 15개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의 관점에서 나카무라 선생의 학문적인 업적을 조망하고 있다. 집필자의 면면도 화려하다. 오쿠다 세이메이(奧田淸明) 前 시텐노지국제대총장이 '자이나교'를, 다가미타 이슈우(田上太秀) 前 고마자와대 부총장이 '인도대승불교'를 맡았으며, 가라시마노보루(辛島昇) 도쿄대 교수가 '인도고대사'를 다뤘다.

1977년 일본 유학시절 나카무라 선생을 만나 논문 지도를 받는 등 20여 년간 나카무라 선생과 인연을 맺어왔던 오진 스님은 '지금 다시 새로운 동양인의 사유방법에 담긴 예지'라는 논문에서 <동양인의 사유방법>이라는 저술의 가치를 밝혔다. <동양인의 사유방법>은 나카무라 선생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된 책.

오진 스님이 특히 관심을 가진 대목은 나카무라 선생의 한국불교관 및 그와 관련된 업적이다. 오진 스님에 따르면 나카무라 선생은 대다수 일본인 불교학자들과 달리 일찍이 한국의 불교사상에 관심을 가졌으며, 중국 · 인도 문화와 아울러 한국불교가 일본문화 전통 형성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또 선생은 한일 양국의 불교가 융성하게 되면 암흑 속에 있는 현대문명에 새로운 광명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오진 스님은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선생의 인식은 퇴임 후 창립한 도쿄 동방학원에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한국 관계학 강좌 개설로 나타났다"며 "나카무라 선생의 선구자적인 역할이 이후 일본 각 대학에서 한국학 관계강좌가 개설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카무라 선생 추모행사 일환으로 선생이 생전에 일본 정토진종 기관지에 강의했던 내용을 결집한 <구조윤리강좌> 출간과 나카무라학술상 시상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구조윤리강좌>는 <동양의 윤리> <삶의 길의 윤리> <생명의 윤리> 등 3권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생명의 윤리>는 생명과 자연, 계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불교생태철학적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15회를 맞은 나카무라 학술상 수상자로는 기무라 기요타카 국제불교대학원대학총장이 선정됐다. 기무라씨는 화엄학 전공자로 동아시아 불교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11조 가사' 눈길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9월 30일~10월 23일)

11조 가사, 사리보함, 옻칠 공예 연꽃.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초대작가전 '유혹(Temptation)에 대한 120개의 정의' 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다.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리는 국제초대작가전에는 스탠드글라스 작가 주디스 스케치터, 섬유예술가 손정례 등 국내외 초대작가 120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 볼만한 불교 작품은 전통염색가 김경열 대표(명주실염색공방)의 '11조 가사'. 이 작품은 갑사 명주 직물에 전통기법으로 천연염색한 뒤 손바느질로 한땀 한땀 정성스레 지었다. 특히 전통 염색 과정은 철저히 전통을 고수한 홍화 염색기법을 사용했다.

홍화꽃을 물에 불려 황색소를 제거하고 콩대나 찰벼집 잿물로 홍색소만을 추출해 오미자나 매실 우려낸 물에 중화 발색시켰다. 이런 까탈스러운 과정 때문에 홍화염색은 조선시대 가사나 임금의 홍룡포 등에 사용됐다.



전통 홍화 염색 기법으로 제작된 11조 가사.

복발형 보주 사리함을 선보인 김영창 소장(전통누금공예연구소)은 감은사지에서 출토된 사리함 내부의 황금제 사리내함을 첨단기법(전통루금법)을 통해 그대로 재현해냈다.

나무에 다섯 번 옻칠해 연꽃을 그린 권정순의 '연(Lotus)' 도 주목할 만하다. 권씨는 "연을 유연하게 그린 이유는 비바람이나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움 속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였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김세준의 '향로'는 전혀 향로 같지 않을 정도로 금속공예의 날카로움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섬세함으로 빚어냈다. (043)277-2501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6>

탐진치와 신경물질

가끔 산사에서 들리는 독경 소리는 세속의 여러 소리들에 물든 우리의 귀를 씻어준다. 특히 천수경에서 '원아속단탐진치(願我速斷貪嗔痴)'라는 구절을 들으면 평소에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탐진치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

세속의 생활을 하면서, 탐하지 않고, 성(嗔)내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부처님 법은 무시하고 세상사에 집착(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삶이 더 잘 먹고, 많이 모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지향하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계의 재산 모으기, 부동산 투기 등의 소식을 접하면 승속을 막론하고 탐 · 진 · 치를 끊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느낌은 신경세포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안 · 이 · 비 · 설 · 신 · 의의 여섯 가지 감각체계는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이라는 자극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신경 세포의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으로 빛이 들어왔다고 하자. 이 빛에 의해서 눈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은 전기신호로 만들어지고, 신경 세포의 고리들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게 된다. 뇌의 신경세포들은 전달된 정보를 뇌세포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세포를 자극해서 반응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내보내기도 한다. 뱀을 보았을 때, 신경 자극에 의해서 뇌 신경세포는 뱀에 의한 반응 물질을 만들어서 필요한 세포(피부나 손 · 발의 세포)로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물질이 신경전달물질이다. 운동 · 흥분 · 감정조절과 관련하는 도파민(dopamine)이나 우울증 · 식욕 · 수면과 관련 있는 세로토닌 등이 모두 신경전달 물질이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 세포핵 내에 있는 DNA와 주위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뱀을 보았을 때, 무서움이 생기는 것 또한 신경 전달물질에 의한 것이므로, 감정이라는 것 또한 수 억년 걸린 나의 DNA의 진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훈련에 의해서 뱀과 쉽게 친해지는 것 또한 태어난 후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DNA의 묘한 조화인 것이다. 이와 같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밝히고 이것이 정신적인 질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 치료를 위한 약을 개발하는 것이 신경과학자, 그리고 생물 화학자들의 연구 분야이다.

재산 모으기 · 부동산 투기 등…
오래된 윤회과정서 만들어진 습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탐 · 진 · 치가 오래된 나의 윤회의 결과임과 동시에 나의 인생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습관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오묘하기 짝이 없는 것은 자비가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유 없이 탐 · 진 · 치가 나를 괴롭힐 때, 이것이 나의 오래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하자. 그리고 탐 · 진 · 치가 일어나는 곳을 관조함에 의해서 오래된 업이 사라진다는 오묘한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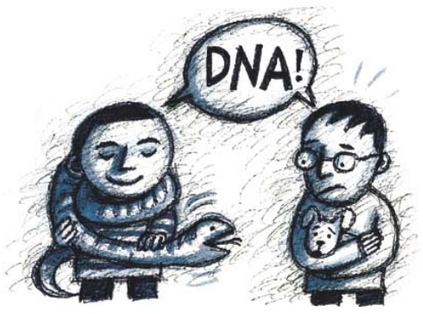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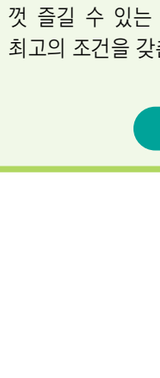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 (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수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창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수양원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음식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찬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기치유사 수련생 모집

- 개강일자 : 2개월과정(8일완성)
  10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4:30
- 수 련 비 : 80만원(2회분납가능)

참고 서적 기치유와 기공수련/기치유학(윤한흥 지음)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윤·기치유 명상 수련원

기치유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상기병, 삼차신경통, 간경화, 통풍, 암, 류마티스, 당뇨등 난치, 불치병 외에도 수술 직후의 빠른 회복이나 유아, 애완 동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특강

- 개강일자 : 11일(화요일)
  주 2회씩 4주 과정(총8회)
  낮 반 : 월,수요일 오후 3시~5시
  저녁반 : 화,목요일 오후 7시~9시
- 수 련 비 : 30만원
- 강 사 : 윤파로 마인드 컨트롤 32년 경력

문의 www.gichiu.com 02-3482-5032
후원 한국기치유 연구회 / (주)명상신문
Energy Healing Center

나무 묘법 연화경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의 지평을 여는
신 종단으로서 종도(스님) 및 법사,
전국 각 지역 종무원을 **모집**합니다.

년령, 학력, 출가이력, 경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사 및 행자는 년령과 남,여 관계없이
일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수계함

묘법 연화경으로 각종 예불 및 의식을
무보시로 가르쳐 드립니다.

대한불교 묘법 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연해광 합장

- 총무원 :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 문 의 : 055)263-4984, 018-432-4984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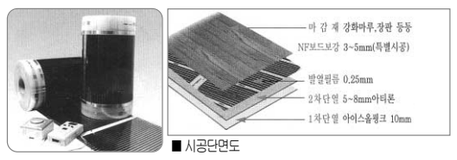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체탈도첩 공고

통합불교아미타종은 종헌 종법의 상벌법 제 8조 3항. 사리(私利)를 위한 파당을 조성하거나 승단의 화합을 파괴한 자.

제 8조 4항. 사승 또는 존속 법류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기 2분의 스님들에 대한 체탈도첩을 공고 합니다.

- 법 명 : 성민스님(속명 : 김남순) 미타사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60-61 3층
- 승적번호 : 02-20

- 법 명 : 원광스님(속명 : 김용직) 정토사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605-207
- 승적번호 : 02-22

2005(불기2549) 9월 21일

통합불교아미타종 총무원장 석법안
총무원 TEL. 02)808-0719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山寺 참옻 조청 1.2kg
옻이 오르지 않는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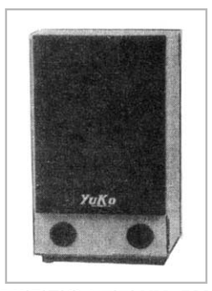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천도재 비디오 3개 (대령, 관욕, 시식, 배송)
완벽한 방송용 자막 커리. 할신가 6만원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10. 4
  월 · 화반, 수 · 목반, 금 · 토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산 : 부산 진구 전포동 레그늄오피스텔 604호 (구전지하철철역 8번 출구)
  문의 : 051)804-8571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웰빙기수련원

기란?
기를 만지고 느낄 수 있다
자기 손에서 나온 기로 타인의 고통이 없어진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탁기를 본인이 느낀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에너지 요법
첫날부터 기를 느낀다면 믿겠는가?

치유기공 수련생 모집

- ◆ 이론은 있으나 실기가 안되는 분
- ◆ 실기위주 전문교육(집중교육)
- ◆ 3개월후에는 전문치유 기공사
- ◆ 기감 강화를 위해 전국 명산 수련
- ◆ 치유기공 과정 수료후 전국지부 개업 가능
- ◆ 개인지도 가능

교 육 내 용

- 기공의 종합이론
- 기감 증폭 수련
- 치유 특수 명상
- 자력 기공
- 타력 기공
- 치유 실습
- 염력 치유 기공
- 영적 치유 기공

치유기공 연구회 02)561-6488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9강 위대한 거지들의 공동체

새가 울고, 설법은 이미 끝났다

바로 그 기원정사에 모인 사람들이 1,250명, 굉장한 식구이다. 이들이 이제 탁발을 나간다. 당시는 지금의 절처럼 공양간이 있어 식사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탁발에 의존했다. 초기에 붓다는 "한 곳에서 사흘을 머물지 말고, 밥을 빌어먹으며, 아무 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순서대로 일곱 집인가를 두드려 깡통을 내밀었고, 거기 담긴 것만 나누어 먹었다. 거지들의 위대한 공동체, 그것이 초기 승가였다.

소유

지금 여기서는 일정한 거주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음식은 여전히 탁발에 의존했고, 소유는 아직까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지금도 발우라고 부르는 밥그릇, 가사 한 벌, 그리고 머리를 미는 삭도와 바늘 정도가 허락된 소유물이었다.

그러나 점점 이 엄격한 규율은 완화되고 유연해졌다. 붓다 사후 일정한 시기 이후 소집되었던 이른바 '결집(結集)'은, 붓다의 교설을 수집하고 확정하겠다는 교리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바로 '계율'에 관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를 찾게 되었고, 또 재가에서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복을 비는 마음에서 스님들을 초대하는 일이 빈번해지다 보니, 초기의 엄격한 계율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웠다.

소유도 그랬다. 이 점은 기독교의 사정과 비슷하다. <장미의 이름>에는 중세의 주요 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소유에 관한 것이었다. 불교도 대승으로 발전하면서 세속과의 유대를 강화하다 보니 소유의 제한 또한 느슨해졌다.

탁발

붓다는 식사 때가 되자,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번화한 도시로 밥을 빌러 나갔다. 집집마다 순서대로 돈 다음, 그 음식물을 들고, 기원정사로 돌아와 밥그릇을 폈다. 각자의 보따리를 펼쳐 놓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자니, 좀 외람되지만,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도시락 먹는 풍경이나, 좀 더 죄송스럽지만, 다리 밑의 거지들이 수확물들을 펼쳐 놓고 먹는 광경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둘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그 삶을 대하는 태도일 것이니, 붓다의 무리들은 당당했을 것이고, 거지들은 아무래도 비굴하기 쉽다. 전자는 스스로 선택했고, 후자는 운명이 그리한 측면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관건은 역시 '마음'에 있다. 같은 일인 듯해도, 어떤 태도와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영향은 천지현격이다.

식사가 끝나면, 다들 옷과 그릇을 수습하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는다. 옷은 로마 시대의 토가나 간디의 감싸개처럼 펼친 담요 같았으니, 입고 벗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설거지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의 절은 별 다른 설거지가 필요없다. 음식도 남기지 않고, 기름기도 없으니 물을 부어 헹구어 마시고,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으면 깔끔하게 설거지가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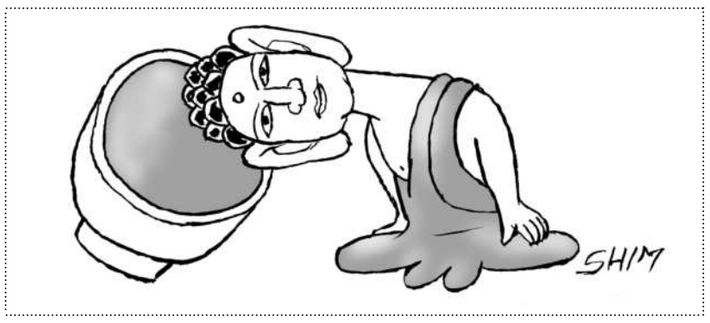
붓다 당시의 인도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불교가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아니 하기를 권했지만, 그러나 탁발의 경우, 가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육식보다 더 금기가 '음식을 가리는 것'이었다. 분별(分別)이야말로 정신적 자유와 평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별별 음식이 다 탁발 그릇에 담겨 있었다. 장난꾸러기 애들이 집어넣은 나뭇조각이나 마른 풀들도 들어 있었고, 때로는 떨어져 나간 문둥이 손가락까지 뒤적거려야 했다. 그것을 '가리지 않고' 다 먹어야 했으니, 위장 장애는 흔한 질병이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그런 어려움의 흔적을 읽을 수 없다. 흡사,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우아하게 마치고 나온 듯한 깔끔하고 정갈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그게 불교 훈련의 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일상

<금강경>의 이 첫 장은 아무 특별한 것이 없다. 그저 붓다가 거처를 떠나 탁발을 했고, 돌아와 식사를 했으며, 그런 다음 의발을 정리하고 자리를 펴고 다시 앉은 정경을 그려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 정경에 이미 법이 다 설해졌다! 불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기거를 분열이나 갈등 없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붓다는 그렇게 살고 있다. 여기서 붓다는 불법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다. 선사들의 대화도 이 지점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도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주는 "차 한 잔 들라"고 했고, 밥을 먹었다는 제자에게는 "그럼, 가서 그릇을 씻어야지"라고 했다. 여기 아무 것도 숨긴 것이 없다. 어떤 숨겨진 뜻이나 신비적인 통찰을 담고 있지 않다. 일상(日常)이 곧 성사(聖事)이다.

우리가 붓다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붓다처럼 우리도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고, 학교로 나서며,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리고 저녁 가족과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때가 되면 잠자리에 든다.

신통

무엇이 다른가. 겉으로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다르다면, 안의 풍경이 좀 다르다.

붓다의 마음은 이를테면 '비어있다(空).'

비어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붓다에게 '무엇인가 특별하고 남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를테면, 신통력 같은 것, 즉 수련이 깊어지면, 공중 부양을 하거나, 남의 속내를 알아맞히거나, 또는 미래를 예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리라는 것인데….

그러나 붓다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없다. 혹, 있다 해도 하찮거나 위험하다.

하찮다는 것은 붓다가 어느 날, 평생을 걸려 이제 예수처럼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공에게 건네는 동전 한 닢이면 건널 수 있는 것을, 그토록 죽자고 고생을 했단 말이오." 위험하다는 것은 수련, 특히 정신적 수련이 길을 잘못 들면, 자신도 망치고 남을 망치기 십상이라는 뜻에서이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 마음을 비우라 했는데, 우주를 말아먹을 기대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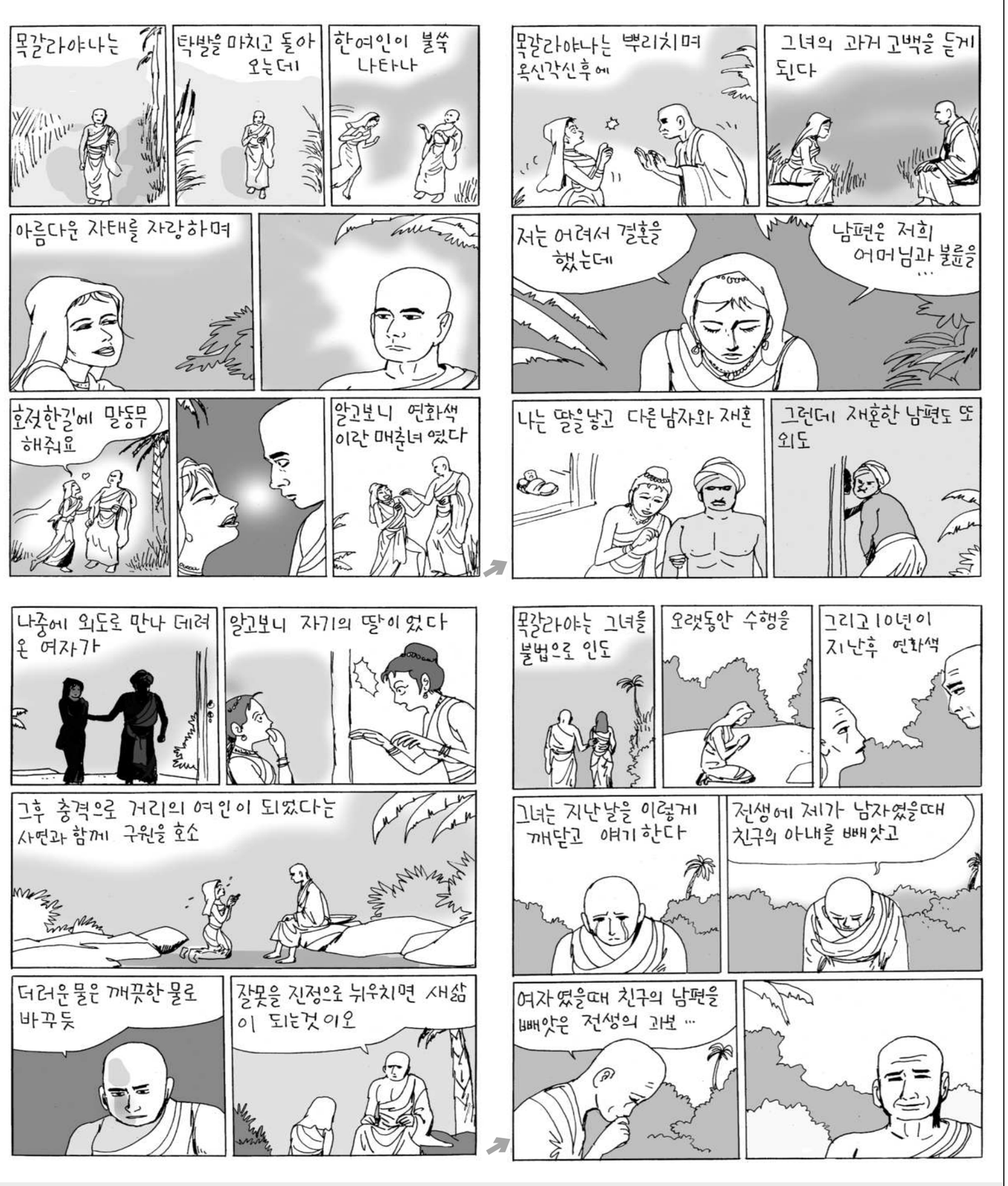
<금강경>이 가르치는 중심은 "법(法)도 또한 공(空)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육조 혜능은 사상(四相)을 경계하면서, 진리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접고, 평상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대를 접으라. 육조 혜능의 용어를 빌리자면 희망심(希望心)을 접어야, 즉 일체의 지배와 공격성을 괄호 칠 줄 알아야, 마음이 본래 공(空)함을 볼 수 있다. 거기가 전부이다. 그 마음의 빈 자리만큼,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요익(饒益)될 방도를 찾는 마음이 열려간다.

그 곡절을 지금의 정경이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 격외의 '소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말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2장이 계속된다. 그냥 보여주어도 모르니, 이젠 번거로운 '문답'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85 목갈라야나 존자와 연화색

조태호



목갈라야나 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중 한 사람. '목건련'이라 불리우며 신통제일로 꼽힘.

네티즌 교리문답

가책이란 말이 불교용어인가요?

문 사람들은 잘못을 고하고 응분의 벌을 받기 전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책이란 말이 불교용어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이 말이 나왔고 불교적인 의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반성)

답1 : 가책이란 말은 계율제정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불교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것은 가책 받을 일이다" 등으로 쓰는 가책(呵責)과 '몹시 꾸짖음'의 뜻인 가책(苛責)입니다. 앞의 가책(呵責)은 불교에서 나온 단어로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 대중스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고하고 응분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율장 중에 <사분율(四分律)>이 있습니다. 불교의 계율이 제정되는 데에는 수범수제(隨犯隨制)라는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율을 정한 것입니다. <사분율>은 누가 무엇을 저지름으로써 어떤 계율이 제정되었다는 상황을 수록하고 있어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행적과 사회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지계행)

답2 : <사분율> 44권에 '가책건도(呵責揵度)'가 있어서 가책 받을 일에 대한 초기 불교의 기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라는 비구와 노혜나라는 두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싸우기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는 곳에 그들이 가기만 하면 이내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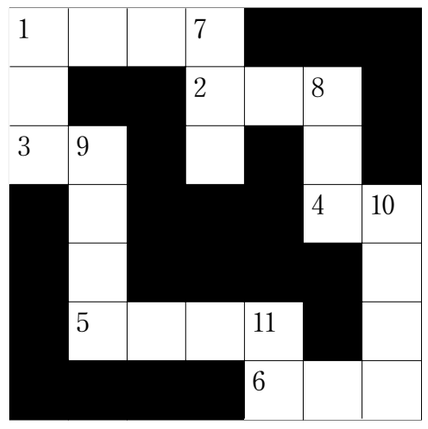
이런 그들의 비행에 분개한 청정비구들이 참다못해 부처님께 그 사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비구대중을 비상소집하고 두 비구를 가책하는 법과 가책 받은 비구의 권리 박탈 범위를 조목조목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가책하기 위해서 먼저 대중을 소집합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 알리고 드러난 비행은 본인과 대중들이 기억하도록 하지요. 기억이 되었다고 확인되면 죄에 따른 벌을 줍니다.

요즈음에는 다만 양심의 가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책은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어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동료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응분의 징계조처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책의 기본정신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지요.(계율)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19면에

가로

1. 신라시대 대국통이라는 벼슬에 추대되어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울 것을 건의한 스님 2. 본식구 외에 덧붙어서 사는 식구 3. 호수나 급류의 하천에서 정수가 뾰족한 배를 노로 저어 속도를 경쟁하는 경기 4.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일, 백일○○ 5. 나유타의 1만배, 무량수의 1만분의 1이 되는 수 6.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세로

1. 부처님의 전생을 묘사한 설화 7. 동양화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그린 묵화 8. 기원전 1만 년 전의 선사시대로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어 쓰는 시대 9. 솜을 얇게 두어 누빈 이불 10. 중국 당나라 계율종 남산파의 개조로 남산 율사라고도 함 11.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일으키는 용기.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알바/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딱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정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비	경
안		륙	시		나	
	49				비	
식	재	재	식	물	충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정통 중국 황실
육임학 비법 전수
- 평생운 流年運의 정확한 예측법
- 古宮(자금성)에 소장중인 秘書로 강의
- 대육임 현대응용 활용법 강의

御 定 六 壬 學 會
(어정육임학전문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구운 마늘환
- 혈액순환 잘 되고 피가 맑아짐.
- 수족냉증 해결 및 만성피로 해결
- 스테미너 강화 및 피부노화 방지
- 성인병 예방 및 강력한 항암효과
- 전립선 비대 예방 및 천식 해결

동양물산 051-338-0120
무료전화 080-766-6600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눈병치료 무료공개
시력장애, 녹내장, 백내장, 노안,
근시, 안구건조증, 눈물, 충혈,
속눈썹 찔림, 결막염, 눈꺼풀 덮임, 황달
10월 8일 5시 하루만 공개
016-663-2159
(누구라도 來)
천제 불국사 의성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번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30~40대
063)561-007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011-483-5639

신심있는
행자모십니다
▷창원성불사
055)286-1050
010-4407-7887

비구니 부전스
님 모십니다
▷부산
010-6377-9769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50전후)
사무1명 (40세전후)
사찰요리보조원1명
011-9150-9190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4555-2981

차량보시해주실
소중한인연을 기다립니다
보시해주신 분에게
직접그린 수묵화로 회향
해 드리겠습니다
010-8542-7188
법공합장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31)764-838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밀양 영구암
055)353-0303

한국(대전)미국
(LA) 부전스님
(비구,비구니)구함
042)282-9270
042)282-7188

65세 이하 부부로서
사찰에서 함께하실분을
모십니다. 행자모심
▷경기도 양주
017-503-3576
031)826-3573

승용차를 보시해주실
인연을 찾습니다
포교활동을 하려니
교통편이 필요합니다
고마우신분 기다립니다
011-851-8080

조용한 암자나
토굴 구합니다
저렴한 사글세나
무상으로
주실분 연락주십시요
010-3083-3320

사찰을 운영하고 싶으나
절이없는 사주에
자신이 있거나
신을 모시고 계신
보살님은 연락주세요
011-509-012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북제천
019-648-3898

사찰관리 운영하실
평생도반 비구니,
보살님 모십니다
법당,요사채,용궁,전답
전세가 3천만원
018-406-3073

산 좋고, 물 좋은 오래된 암자
3,500만원에 사글세 냅니다.
법당,요사채 100평. 용화전,
용왕전,산신각,정각
꼭 원하시는 분만 전화요망
011-9021-2266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비용 4,500만원(절충가능)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0-6512-1237

명 리 학 무 료
초급반 00명 · 고급반 00명
- 기초에서 전문과정 까지 가르칩니다
- 지금 무엇을 할 까 망설이는 분
- 공부는 했으나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
- 수강료 부담으로 독학 하시는 분
- 회원제로 운영되며 월 회비 3만원

해수 명리 연구원 원장 직강
문의 전화 : 02)3453-0001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동 전화국 앞

수능시험합격부적패션출시
"경명주사"로 특수염색자수 하여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며 행운을 주는 패션제품
-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 제품 : 팬티, 손수건, 양말, 차량용복주머니
선물용포장 017-533-1356 [특허출원]
유통사업관심계신 분 – 전화상담

행자[예비스님, 남·여]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편안하게 모셔드립니다
- 선착순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사주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선 방 대 중 모 심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는 감포도량에 선방을 개원하고 동안거 정진대중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산과 바다를 함께 아우르는 천혜의 대도량에서 큰 깨달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 무문관 : 15명 (법랍 10년~20년 승려증지참) - 비구
- 재가대중선방 : 40명(주민등록증지참) - 건강한 여성 불자
- 행자 : 10명(45세미만, 남.녀) - 대구큰절 중 택일
- 동안거 결제일 : 음력 10월 15일 (그 이전에 방부허락을 받으셔야 함)
- 감포도량 위치 : 감포 대본2리(회곡)에 있음
- 선방 방부문의 : 011-881-9710 (감포도량 연봉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입학 납골(053-474-8228), 행자문의 011-9852-0075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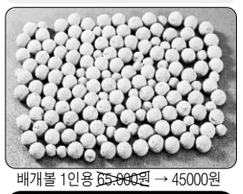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생명의빛 생명의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아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대출전문금융기관

◈ 사찰매매자금 대출
◈ 불사자금대출
◈ 기타대출상담

재무부인가 제 9-205호
「대구」보현사신용협동조합
문의전화 053)426-1037
전문상담 : 서서열 전무
011-527-1037

제4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본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뜻 있으신 분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과 정

기초과정(6개월)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상용영반, 요령, 목탁타법
전문과정 (1년)	삼신이운, 각단권공, 사다라니, 대령관욕, 49재, 천도재, 시식, 사물타법, 요잡, 제반의식

2. 모집대상 : 스님 및 불교의식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
3. 강의일시 : 매주 월-토요일 중 택일 오후 2시부터 (주1회 4시간 교육)
4.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수강원서 / 사진 2매
5. 교 수 : 대원스님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사단법인 부산 영산재 보존회 범음 범패 부문 조교)

부산 동래구 명장동 산 54-1 (금불사 부설)
051)522-1948, 051)523-1948, 011-597-8077
영남 범음 범패 교육대학

진각스님 철학교실 수강생 모집



어려울때는 철학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문을 모르셔도 괜찮고 기초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쉽게 속성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과목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2. 교육과정 : 기초부터 5개월
3. 모집요강 : 스님, 일반 男 · 女
4. 교육기간 : 주4회, 1일 1시간씩

卍 大韓佛教 부산 송광정사 부설
진각스님 명리 철학 교육대학
부산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안쪽 50m에 있습니다.
전화 051-867-8438 / 팩스 867-7438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홍천
- 법당: 23평
- 요사: 20평
- 부지: 5900평
- 가액: 3억

- 위치: 부산
- 법당: 30평
- 요사: 120평
- 부지: 107평
- 가액: 4억

- 위치: 경기 청평
- 법당: 25평
- 요사: 30평
- 부지: 670평
- 가액: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분당목조사찰-9억5천
2.평창 3만평사찰-10억
3.경북관광사찰-12억
4.강릉 2500평별장-5억
5.이천 500평사찰-3억
6.산본포교원100평-월180만원

◆ 1억~10억 사찰, 사찰터 많음
※ 직원, 공양주, 기도스님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급)안내

- 위치: 양산시 웅상읍(일명 서창)
- 대지: 60평(평당 200만원 이상)
  건물: 법당 30평, 요사 32평
  칠성각 5평(신축 단청필)
- 가액: 2억6천(은행 9천포함)
- 특징: 부산시내버스 5개노선
  울산시내버스 2개노선
  신도시 요충지

011-868-5997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청주과광호텔앞
- 평수: 45평 3층건물중 2층
- 시설: 산초불, 고급후불
  탱화 3점.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보만 오셔서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261-2068

도심포교당안내

- 위치: 밀양시 교동
  시청주변
- 대지: 310평
- 건물 3동, 3층건물 1동
  단청 슬라브 기와 1동
  별채 1동
- 가액: 6억 5천

010-4876-5535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경기도
- 부지 : 천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상계역 2분거리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내 위치
- 2,3층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2층 40평 3층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시설완비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약간

02)952-8131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시장내요지
  2층 건물에 2층 65평
  법당, 방3칸
- 가액: 전세 300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결정
- 허가등록된 주차장운영
  (월세 충당)

051)364-488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
- 부지: 2000평(평지임)
- 법당: 30평(목조)
- 요사: 80평
- 양도가: 15억(대출가능)
  ※서울강남에서 40분거리
  유서깊은 사찰임

- 위치: 서울시내
  (지하철역 200m)
- 대지: 60평
  3층: 법당 40평
  1,2층: 요사 80평
- 양도가: 10억(대출가능)
  ※30년 역사의 도심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최고 좋음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회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010-7324-5115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총 602평에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석탑.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11-5302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042)274-0108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 상동
- 대지: 370평
- 법당: 20평
- 요사: 임법당
- 가액: 1억7천
- 풍수만점 토굴
  별장으로 개조가능

- 위치: 양산
- 대지: 280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3억5천
- 범어사에서 20분거리
  조용한 시골암자

- 위치: 경주근교
- 부지: 3천평
- 법당: 15평
- 요사: 20평
- 가액: 2억
- 산세좋은 산속암자
  불사가능 도로완비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당진시내
  (제1교옆)
- 4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가능)
- 면적44평 큰방1 욕실
  부처님 탁자(무료로 드림)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10-9473-3174

포교당안내

- 위치: 일산
- 평수 113평(분양)
- 시설 위치 A급
- 포교에 뜻이 있는 분
  적극환영

011-749-4553

사찰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40평(인법당)
- 법당: 18평, 부지: 약 300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

02)918-1215
016-237-3006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600평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교통편리, 산세위치 수려함,
  신축건물 고건축
- 가액 :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530-849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납골당]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팔공산)
- 부지: 3000평
- 법당: 40평
- 가액: 상담후결정
- 특징: 팔공산내 청정지역에
  납골20000기 안치규모의
  사찰로 지금까지 공사비
  15억원이투입됨(공정 80%)

- 위치: 대구광역시소재
- 부지: 80평(사용평수 150평)
- 법당: 30평(임법당)
- 요사: 30평
- 가액: 1억8천만원
- 특징: 숲과계곡이 있는 도심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급) 안내

- 부산대 사찰
  사내 평수 천평
- 주차 85대 가능,
- 가액 : 13억

051)326-1545
011-563-154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밀양
- 법당 30평, 단청필,
  요사채 60평, 부지11,060평
- 복지원, 납골당, 수련원, 등
  대형 불사를 하실
  스님들께 적합
- 가액 : 10억

055)352-4733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구성면
- 면적: 2만평
- 산세가 수려하고
  돌로둘러싸인 팔각정
  천하절경명산으로
  소문난 명승고적지
- 가액: 2억6천만원

054)433-3533
011-9570-3533

사찰안내

- 위치: 전남 완도군 완도읍
  5분거리
- 평수 : 400평. 주차완비
- 법당,산신각,요사채,방4개
- 집기일체양도, 즉시법회가능
- 비구니나 노비구스님께 적합한 도량
- 가액 : 7천 5백. 전세 3500만원
- 5년 사용함

010-3120-573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부지: 사용 삼백평 등기는 백평
- 법당: 18평 기와 단청됨 남향
- 요사: 23평 외 7평 기와 동향
  용왕전 3평 약수물이 좋음
  산신각 3평 산이 힘있는 도량임
- 미륵부처님 11자 석불로 모셨음
- 절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청정도량임
- 집기일체 구비되고 몸만오시면 됨
- 가액은 일억 오백만원 급 안내임
- 절은 20년쯤 되고 추천하는 사찰임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추풍령 부근
- 대지 약200평
  1,2층 법당, 방4개,
  요사채 1동
- 현대식건물
- 가액: 협의 절충 결정

010-4408-5060

사찰안내

- 위치: 양산 롯데제과 옆
  최고의시설
- 대지: 150평 • 건평 250평
  1,2층 찜질방으로 시설됨
  3층 요사채 4층 법당
- 가액: 3억 융자 안고 7천만원
- 불심이 강한 스님께 현시세에
  땅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드립니다

011-857-3775

토굴 터 안내

- 산으로 둘러쌓인 탁트인 전경
  700고지 암자나
  별장자리로 적격
- 대지: 815평 내외
  (솔밭 200평, 밭 400평,
  마당 160평)
  조립식 주택 40평

033)333-1079

포교당 안내

- 위치: 청량리역,
  회기역 3분거리
  회기동 큰도로 사거리 경의의대
  가는길 상가주변 단층집
-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7135-403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기장군
  교리 입구
- 평수: 60평
-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시설일체완비

016-732-8163

사찰안내

- 위치: 청도 이서면
  대구에서 30분
- 대지 150평, 법당 20평,
  요사 20평
- 가액: 1억3천만원
- 몸만오시면됨

016-501-3671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당진시내
- 4층중2층(옥상사용가능)
- 면적44평 큰방1 욕실
  (한성아파트 근처 산림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60만원
  탁자와 자리 에어컨등 무료

010-9473-3174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 구조 : 법당30평,
  요사채 30평
- 은행융자 : 3천5백만원
- 가액 : 1억8천만원
  (절충가능)

011-9543-0226

미륵은 진정 우리 곁에 있는가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해조음 海潮音]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 불교대구회관 2F Tel 053-624-5586 Fax 053-624-5587 E-mail bubryun@hanmail.net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부여 10분거리
  큰도로 근접, 뒤는산, 정원양호
- 대지 200평 2층 골조 슬라브
  2층법당 40평 대웅전, 산신각
  1층 40평 요사채
- 가액: 1억2천만원
  하실분만연락바람

041)832-1747
011-9805-6747

토굴(급)안내

- 위치: 단양, 새집 양도
- 대지(전포함) 839평, 집 20평
- 경관수려 A급, 전망최고
  도로, 전기, 시설 되있음
- 부분 매매 가능.
  가액 6500만원
- 혼자 계실분 적합

010-6460-131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홍재역
  10분거리
- 상가 4층 건물중 1층
- 평수: 약 45평
- 전세금 3천2박6만원
  시설비 1천만원
  (시설완비 일체)
  월세도 가능함

017-766-278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420평
-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

010-5655-1250
051)973-4562
051)941-8989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
  도시가스(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법단2단 목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주차가능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목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9-1번지
- 실내평수 60평, 큰법당1,
  큰방2, 거실1, 공양간1, 창고2,
  화장실2, 옥상 60평 독점
- 가액: 1000만원에 월 60만원
  또는 1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개인사정급매

010-7126-8340
032)519-1108

포교원 안내

- 대전 태평동 시장입구
  아파트밀집지역
- 평수: 40평 3층
- 방2개, 주방, 실내화장실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에어컨 등 집기일체
  모든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42)525-5355
011-9704-2558

마음의 그릇이 바다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일체제불과 저와 여러 스님들과 더불어 같이 본래 한자리로 돌아갑니다. 더우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인데도 모두 그냥 '비 오거나 말거나 맞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역력히 보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하다가 정히 비가 와서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면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정성 여하에 달린 자신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것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장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스님들보다 더 신심이 돈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싸 가지고 돌아가는 우주 전체의 그 중심 주처가 우리들의 중심 주처이기도 합니다. 좀 작고 크고 이럴 뿐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기 중심 주처에 그 큰 중심 주처가 둘이 아니게 직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생활하는 그 곳에 바로 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직결이 돼 있구요. 만물만생의 마음 중심 주처,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음들의 주처가 바로 우리의 마음 주처에 같이 가설이 됐다는 얘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은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서로 뜻으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하시겠지만 근본으로 말미암아 일체가 다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도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바다의 소임자를 주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의 관리인을 주산신이라고 했구요, 풀과 나무들의 관리인을 주림신이라고 했구요. 마음의 중심 주처라는 그 주가 모든 관리를 합니다. 갖가지 천차만별의 이름들이 다 주어져서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소임을 맡아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신입니다. 그리고 또 주신들끼리 모여서 회담을 하거나 서로 통하게 하는 소임자를 주주신이라고 합니다. 천체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중심 주처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처에 주인을, 이 몸뚱이가 집이라면 집 안에 주인을 하나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공부하지 않고 내 집이 빈집이라면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업보성이라든가 인과성이라든가 윤회성이라든가 이 다섯 가지가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집 안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을 딱 세워 놓는다면, 중심에 주처를 세워 놓는다면 절대 바깥에서의 세균성이나 또는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업식이나 윤회성 업보성 영계성, 모두가 다 감히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안 세워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본래 있으나 자기가 생각을 해서 세워 놔야 세워집니다. 우리가 생명은 있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몸이 움죽거려지지 않듯이, 생각이 있어야만 몸이 움죽거리고 작용을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생각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모두가 생각이 있어야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전력이 태산 같아도 끌어 쓸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중심에 주처가 다 같이 직결이 돼 있고 연결이 돼서 가설이 돼 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며 심성과학이며 철학이며 천체물리학이며, 모두가 종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상대가 있고 무슨 부처가 있고 무슨 세상이 있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 집부터 바로 중심에 주처를 세워 놔라"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중심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을 모두 세워 놓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위로는 한 우주를 꿰고 아래로는 기둥이 딱 딛고 있어요. 꿰고 있다는 건 직결이 돼 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인공 뿌리, 주처는 움죽거리질 않아요. 움죽거리질 않고 힘만 배출하는 거죠. 힘을 배출한다구요. 축의 힘으로 인해서 수레가 걸림 없이 돌아가듯이 우리도 주처에 기둥을 딱 세워 놓는다면 그 힘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 몸뚱이가 작용을 하면서 수레같이 돌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인간이,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높고 낮고, 길고 짧고, 넓고 좁고, 크고 작고,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상대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주처, 주인, 주장자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주장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꿴 주장자와 내 주처의 주장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는 가설이 돼 있고, 위 아래를 받치고 꿴 거는 같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세가 일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을 안 세워 놓고 그냥 가는 사람 다르고, 주인을 딱 집에다가 세워 놓고 가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항상 걸림 없이 집을 보도록 주인을 세워 놓는다면, 자기 주처를 세워 놓는다면 그게 바로 보현신이며 법신입니다. 자기가 세워 놓은 그 마음 자체가 부처라면 법신을 세워 놓고 화신 즉, 보현신을 세워 놓는다 이겁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세워 놓음으로써 바깥에서 악행, 즉 말하자면 인과성이나 윤회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이나 영계성, 이러한 잡다한 모든 영계들이나 유전에 의한 것들이나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거기를 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한다고 주인공에 뿌리를 세워 놓은 것은, 세워져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 찾아서 거기 세워 놓은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포함해서 돌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죠.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붙을 리가 없어요. 먼지 하나도 거기 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분에게는 번뇌도 불을 자리가 없고 업보도 불을 자리가 없고, 유전성이나 인과성 윤회성 업보성 영계성까지도 전부 불을 자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만약에 빛으로 간다면 빠르기는 하지만 가는 곳만 보이겠죠. 그리고 빛으로 가다가는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도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한생각입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한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른 이 마음은 가고 옴이 없이 땅속이든지 물속이든지 어디든지 그냥 한생각에 두루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법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마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벽을 치면 붓장이 올리도록 마음을 넓혀서 지혜롭게 들으세요. 그리고 주인을 세워 놓지 않고 이 공부를 안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이 비었어요! 주인을 세워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숙명통 자체가 포함된 오신통을 지금 현대 말로 하자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구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된다면 그 입력된 대로 가차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행이 저질러지거나, 윤회성이 저질러지거나, 영계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말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몸뚱이 속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도록 돼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것이 가차 없이 자꾸자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인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과 직결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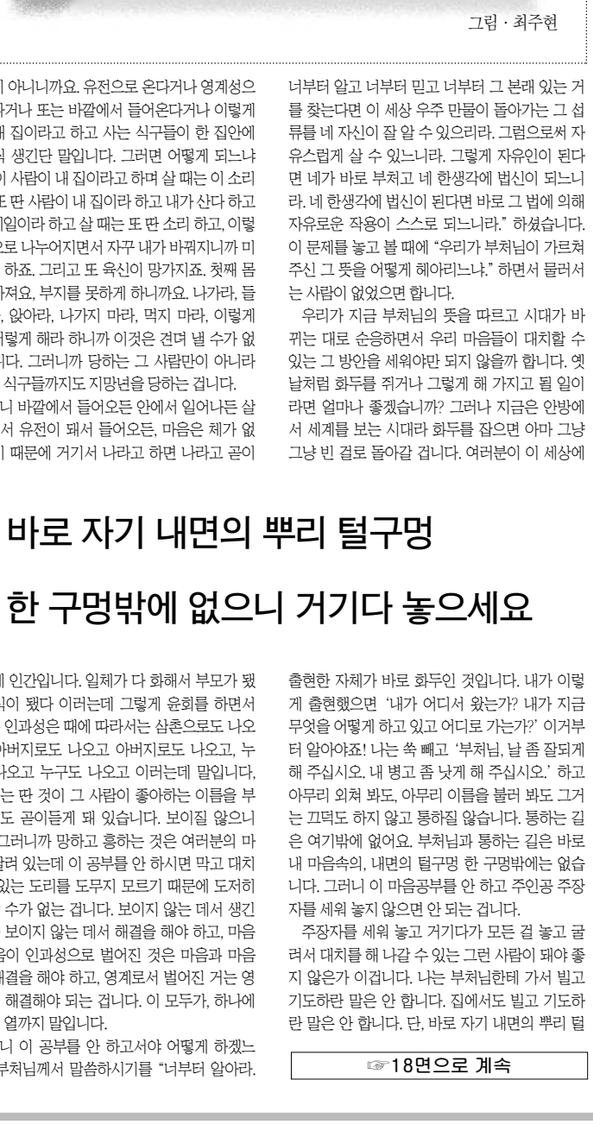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림 · 최주현

데 그게 아니니까요. 유전으로 온다거나 영계성으로 온다거나 또는 바깥에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집이라고 하고 사는 식구들이 한 집안에 둘 셋씩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내 집이라고 하며 살 때는 이 소리 하고, 또 딴 사람이 내 집이라 하고 내가 산다 하고 내가 제일이라 하고 살 때는 또 딴 소리 하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면서 자꾸 내가 바뀌지니까 미쳤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육신이 망가지죠. 첫째 몸이 망가져요, 부지를 못하게 하니까요. 나가라, 들어와라, 앉아라, 나가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이것은 견뎌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의 식구들까지도 지망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들어오든 안에서 일어나든 살아가면서 유전이 돼서 들어오든,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고 하면 나라고 곧이 듣는 게 인간입니다. 일체가 다 화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러는데 그렇게 윤회를 하면서 가져온 인과성은 때에 따라서는 삼촌으로도 나오고 할아버지로도 나오고 아버지로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러는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딴 것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름을 부르는데도 곧이듣게 돼 있습니다.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이 공부를 안 하시면 막고 대치할 수 있는 도리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긴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 해결을 해야 하고, 마음과 마음이 인과성으로 벌어진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영계로서 벌어진 거는 영계끼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이러니 이 공부를 안 하고서야 어떻게 하겠느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고 너부터 그 본래 있는 거를 찾는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섭류를 네 자신이 잘 알 수 있으리라. 그럼으로써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그렇게 자유인이 된다면 네가 바로 부처고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되느니라.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된다면 바로 그 법에 의해 자유로운 작용이 스스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면서 물러서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시대가 바뀌는 대로 순응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대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세워야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옛날처럼 화두를 쥐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방에서 세계를 보는 시대라 화두를 잡으면 아마 그냥 그냥 빈 걸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바로 자기 내면의 뿌리 털구멍
한 구멍밖에 없으니 거기다 놓으세요

든는 게 인간입니다. 일체가 다 화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러는데 그렇게 윤회를 하면서 가져온 인과성은 때에 따라서는 삼촌으로도 나오고 할아버지로도 나오고 아버지로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러는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딴 것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름을 부르는데도 곧이듣게 돼 있습니다.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이 공부를 안 하시면 막고 대치할 수 있는 도리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긴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 해결을 해야 하고, 마음과 마음이 인과성으로 벌어진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영계로서 벌어진 거는 영계끼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이러니 이 공부를 안 하고서야 어떻게 하겠느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고 너부터 그 본래 있는 거를 찾는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섭류를 네 자신이 잘 알 수 있으리라. 그럼으로써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그렇게 자유인이 된다면 네가 바로 부처고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되느니라.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된다면 바로 그 법에 의해 자유로운 작용이 스스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면서 물러서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시대가 바뀌는 대로 순응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대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세워야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옛날처럼 화두를 쥐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방에서 세계를 보는 시대라 화두를 잡으면 아마 그냥 그냥 빈 걸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출현한 자체가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출현했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부터 알아야죠! 나는 쑥 빼고 '부처님, 날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내 병고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외쳐 봐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 봐도 그거는 끄떡도 하지 않고 통하질 않습니다. 통하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부처님과 통하는 길은 바로 내 마음속의, 내면의 털구멍 한 구멍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안 하고 주인공 주장자를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장자를 세워 놓고 거기다가 모든 걸 놓고 굴려서 대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좋지 않은가 이겁니다. 나는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기도하란 말은 안 합니다. 집에서도 빌고 기도하란 말은 안 합니다. 단, 바로 자기 내면의 뿌리 털

☞18면으로 계속

마음의 중심 주처를 딱! 세워 놓아야

☞17면에서 계속

구멍, 한 구멍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놓으세요. 마음이 나오는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내 앞에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다 거기다가 '아, 당신이 다 하는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 하고 '당신이 대치를 하고 당신이 화목하게 할 수 있어. 지혜롭고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야.' 하고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다 놓고 껴넣 때는, 내가 주인공에다 탁 놓고서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즉 자기 마음이 잘되고 못되고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럭하면 안 된다 된다를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생각이 그냥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을 삼위일체로 꿰어서 한생각을 내던진다면 법이 되는 겁니다. 한데 떨어지지 않는 법! 그대로 실천되는 법! 이 법을 그대로 행해야 세상천지의 갖가지 악행, 갖가지 부조리, 갖가지 병고…, 어떻게 일일이 말로 그 이름을 다 대리까마는,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대치할 수 있습니다.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거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꿰고 뚫어서 인간 주처 자체하고 결부된 이 자체를 바로 전력이라 해도 좋고 에너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요걸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에너지가 불타고 있듯이 있는데, 그것을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능력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 무한의 기둥, 불기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 이 마음으로써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병이 났으니 이 병을 너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면 그 불기둥에서 자연적으로 약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빈손이 하나 나와서 병이 난 사람한테 결부가 됩니다. 바로 한 찰나에 결부가 돼서 한 찰나에 그 병을 없애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불기둥에서 나간 거니까 불로다가 그냥 제거시키는 거죠. 어떤 거든지 막론하고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빈손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겠습니까? 빈손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명이 짧으니 명 좀 길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칠성부처의 빈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칠성부처라는 그 이름이 빈손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칠성부처의 빈손이 나와서 한 찰나에 결부가 돼서 그 명을 다소나마라도 이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것뿐이 아니라 지장보살의 빈손도 있고 산신의 빈손도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해신 주림신 뭐, 모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그 불기둥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빈손의 그 이름이 탁 나오면서 자기와 결부가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자의 그 기둥 안에서 입자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입자가 나올 때는 바로 입자 하나에 칠성부처니 지장이니 뭐 전부 헤아릴 수가 없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신이 돼서 찰나에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의 한생각이 아촉이요 한생각이 아미타요 한생각이 지장이요 한생각이 관세음이요, 한생각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나툽니다. 그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물에서 죽게 됐을 때는, 즉 말하자면 해신으로서 생각을 하게 하면 금방 용신이 돼 버립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생각만 하고 작용을 안 한다면 무효죠. 그래서 부처님의 한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한생각을 내시지 않는다면 법신이 없고, 법신이 없다면 바로 보현신이 없어요, 작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근본, 그 뿌리인 근본이 있고, 생각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작용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부처님도 계시고 도심도 있고 도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을 찾고 경전을 보기 이전에 내 마음부터 그렇게 단련을 해 가지고 경전을 한번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싱그럽고 광대무변한 것인지를 아실 겁니다. 경이라는 것도 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스리면서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교입니다. 그 경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자기의 마음 다스림에 의해서 결부돼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경만 읽으면 잘되는 줄 알아서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대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차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고, 사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큰 자배기가 있고 이렇듯이 말입니다. 사람도 종지와 같은 차원의 그릇이라면 간장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차원이 접시라면 그저 나물 무친 거밖에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바다가 돼라 이 소립니다. '그 불기둥에 놔라, 놔라' 하는 것은 한바다에 물 몇 그릇 붓는다고 두드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물 몇 그릇 퍼낸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맑은 물, 더러운 물, 구정물, 흙물, 핏물, 고름물 할 거 없이 다 들어가도 다 바닷물일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가라앉혀서 그대로 양식이 돼서 만생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다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넓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마음 하나가 지금도 여러분의 집을 점프해서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밥통에 밥해 놓은 것도 볼 수 있고 자기 가정에 무엇을 해 놨는지 볼 수 있듯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해 놓고 살고 있고 무엇을 어디다 두고 한 것까지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빛보다 더 빨리 가서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 것을 보고자 해서 그것이 찰나에 봐질 때, 한 귀퉁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점보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공부입니까?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한 찰나에 전체를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다. 한 찰나에 전체를 듣는 것, 바로 천이통도 도가 아니니라.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한 찰나에 수많은 사람의, 아니 곤충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숙명통,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다 알고 남의 것도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이 다섯 가지가 다 도가 아니니라.' 그러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남의 마음을 알면 뭘 하고, 보면 뭘 하고 또 어디서 온 줄 알면 뭘 하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 뭘 합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물 한 그릇을 목마른 사람한테 줄 수 없고 내가 목마른데도 먹을 수 없다면 그건 도가 아닌 겁니다. 물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실천을 하지 못해서 그걸 갖다 먹을 줄 모른다면 허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뜻 집어서 먹일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 도라고 했습니다.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서 오신통을, 다섯 가지를 그냥 자유스럽게 굴려야만 누진에 속합니다. 이름 해서 누진통이라고 그랬는데 누진통이라는 이름조차도 없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도 아닌 도죠.

그러니 여러분이 비를 맞고 이렇게 왔는데도 뭐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거나, 그냥 푸대접을 하고 본체만체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나도 한때는 비가 억수같이…, 이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굵은 장대비가 억수같이 내려와서 그냥 막 물이 이렇게 차서 흘러내리는 숲에 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즐겁고 좋아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밀짚모자를 썼는데 물이 졸졸 흘러서 그냥 그 밀짚모자가 접혀지면서 물이 막 흐르니까 아, 그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말입니다. 물이 살 속으로도 안 들어가고 뼈 속으로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음속은 못 전혀 안 들어간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도 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데에 인내를 기를 수도 있고 참을성도 기를 수가 있고 굳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 모두가 공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얍삽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야지.' 한다면 허, 비가 안 오기만 하면 뭘 합니까? 비가 오는 맛도 알아야 하고 안 오는 맛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되는 것을 알면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모든 것을 대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을 갔다면 갔다가 올 줄도 알아야지, 만약에 차를 타고 갔다면 내릴 줄도 알아야지, 타고 돌아다닐 줄만 안다면 그것은 팡입니다. 그 인생은 아주 팡이에요! 차를 타고 갔으면 내려서 걷기도 하고 또 탈 줄도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너무 오래 많이 하면 또 엇갈려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갈는지 모르니까요, 단 하나만 쥐고 모든 것을 잘 기억하셔서 재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보면 진실이 돼 버립니다. 진짜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구요,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위 법문은 1994년 10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주인이 본래 있으나 생각을 해서 세워 놔야 세워집니다

天下大道 육경신 대운도통 수행으로 허공청정 진공묘유 만법귀일 대법회

지각이 변동되어 천장지비에 감추어진 원시반본으로 지구촌에 천지개벽이 오고있다

마음과 견성도통의 근본은 태식배꼽에 있고, 대자연과 산천초목 만물 일체의 생명과 운명과 건강은 태양에 있고, 진공묘유, 허공청정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삼시구충을 제도하며 생노병사 해탈하는 경신 도통 대 법회



선천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천문 달마 도법으로시작되는 2005년 (양)10월 2일 자시와 3일 오시에 경신일이 들어 경신입문한 공덕으로 평상시 수년을 수행한 공덕보다 큰 힘을 얻는 이법회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도란 무엇인가 생명인 것이다.

진광 경신도통비법에 허공청정 진공묘유 일체의 도법이 다 들어있다.

만병은 태식 건강 비법에 천하의 건강비법이 다 들어있고

- 당신은 태식법을 아십니까 ? 도통의 최고의 비밀인 것이며
- 태식법이란? 마음 정신 육신을 수련하여 도통하는법인 것이다.
- 치료해도 안되는 모든병, 잡신에 빙의 된 모든 병을 제도 해탈하여 중생을 구하는 경신 수행법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을유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에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법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는다.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인 것을 경신일 하늘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그 베일을 벗기는 영산대제로 대운받고 도통하오며 업장소멸 하소서.

조상천도 · 구병시식 대운맞이 범패 영산대제합동

동참금 55만원 선착순 접수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한영)

자신속에 들어있는 신선부처와 삼라만상 성불도통 일체법은 천안통경과 루진통경만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진광대도인 것이다.

을유년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에 경신이 든 근본은?

경신일은 60일,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경신수행으로 수마를 이기면 모든 종교를 초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천안통과 루진통경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여 허성세월만하는 것이다. 이 수행법은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 줄 수있고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 기도가 경신 수행인 것이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고 자신의 운명과 수명을 개척하는 최대의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이 경신입문인 것이다.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도술, 의술, 점술, 점술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참선, 요가, 단전, 명상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을유년 10월 2~3일이 경신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배속에 검은똥은 악령의 저승사자인 고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세포와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건강찾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도통하시어 큰 부자 되시고 도통군자 되소서!

특별 태식법과 건강, 운명 상담 ☎ 02)821-7767

- 입제 : 양력 2005년 10월 2일 일요일 (해시)
- 해제 : 양력 2005년 10월 3일 월요일 (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5만원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총 본산 태일합장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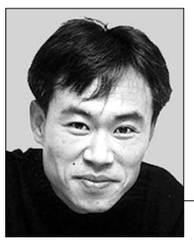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불자 세상보기

윤 제 학
동화작가

교원평가제와 '꿈꿀 권리'

"교사의 자리는 진보의 제일선에 있다." 평생을 자립적이고 자족적인 삶으로 일관했던 스콧 니어링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이다. 그의 스승이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라 한다. 그는 이 말 다음에 "나는 어떤 사회체제에서든 교사의 역할이 이 한 마디로 요약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그의 견해에 동의한다.

교육부총리가 9월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힌 '교원평가제'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진보적 교원단체임을 자처하는 전교조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식 있는 교사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쓰일까 봐' 혹은 '일부 악의적인 민원에 따라 무고(誣告)한 피해를 보는 교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란다. 군색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의 분별력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설사 일부 몰지각한 교육 행정가나 학부모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교원평가제'를 거부할 명분일 수는 없다.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한다. 서울 강북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모 중학교의 3학년생인 딸아이가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학기 초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전자계산기를 들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설마 싶어 다그치듯 재차 확인했지만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았다.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적당히 얼버무리며 '학원에서 다 배웠지'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거의 공(空) 교육이 되다시피 한 우리나라 공교육(公敎育)의 현실이다. 교원 단체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사실을 일반화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공감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와 학원의 주종관계가 역전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른바 명문 학원가와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는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원의 전문성을 지금의 몇 배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고는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중·고교 영어 교사의 토익 시험 성적이 대기업 입사 지원자의 평균을 밑돌고 심지어 14%가 중학생, 8%가 초등학생 평균점수 이하인데 어떤 부모가 빚을 얻어서라도 학원에 보내지 않을 것인가. 부모의 형편이 빚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 교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인가.

초·중·고교생 자녀를 가진 교사들이라도 떳떳이 한번 밝혀 보라.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갈수록 이 나라에는 자식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평준화'의 이상을 실현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뜨거운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도(이런 것들이 진보의 지향점 아니가) 교원의 자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지표인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도 교원의 전문성 부족이 주요원인이다. 그럼에도 평준화의 기조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만약 사교육은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아이가 무능한 교사로 인하여 기회의 평등조차도 박탈당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일이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고 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이며, 남을 기만하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일이므로 그 죄가 크다'고 했다.(범망경)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100% 보장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현실적 대안은 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폐사지에서 음악회가 열린다. 텅 빈 공간에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득 찬다. 생각만 해도 근사하다. 사실 폐사지는 텅 비었다라는 이유로 방치되어 온 공간이었다. 폐사지는 무관심 속에서 다만 썰렁할 따름이었다. 한때는 불자들의 각광을 받았을 절터가 시절인연이 다하여 상(相)을 지워내게 되자 망각의 대상으로 떨어진 곳이다.

이제 폐사지가 윤기를 내기 시작했다. 폐사지의 조용한 웅변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중인 1 폐사지 1 지킴이 운동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전국의 폐사지는 대략 2천 내지 3천 군데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누구도 문헌 검색과 더불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폐사지 분포도 같은 지도를 구해 볼 방도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폐사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니 문화재 보호 관련 정책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았다.

음악으로 살리는 옛 절터

1960년대 이후 발굴된 폐사지는 1백여 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폐사지의 문화재가 무관심 속에서 망실되거나 상처를 입고 있는 중이다. 폐사지의 당간지주나 석탑 혹은 주춧돌 등이 훼손되고, 심지어 절터에 민가나 밭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다. 유린당하고 있는 폐사지, 우리들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 추진중인 폐사지 보존법안에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폐사지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나 지자체 혹은 관련 단체 등은 폐사지 보호에 적극적으로 정성을 모아야 할 것이다. 폐사지는 방치된 땅이 아니다. 그곳은 수행의 종교적 공간이었고 문화의 공간이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공간이다.

양주 회암사지에서 음악을 개최한다. 정적(靜寂)의 공간인 폐사지에 조명을 비추어 '텅빈 충만'을 연출한다. 폐사지에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서 그동안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외로웠던 절터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폐사지 지킴이 운동에 커다란 박수를 보낸다. 절터에 뒹굴던 석물들, 이제부터 폐사지는 외롭지 않을 것인가.

■ 윤범모(경원대 미술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공멸 대신 '공존'

"이익 되거나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손해되는 것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툼과 분쟁이 없어진다." 〈열반경〉

북핵 6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마련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향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가기 위한 발판까지도 구축됐다는 의미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이 큰(?) 결단을 내린 셈이다. 북한은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 분위기다.

6개항의 공동성명을 잠시 들여다보면, 눈여겨 볼만한 것이 있다. 6개국의 관계를 규정한 대목이다.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상호 평화적 공존을 약속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의미 때문이다.

물론 6개국이 계산한 이해득실의 셈법은 다르다. 이른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란 원칙이다. 달리 말하면 '줄 것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계산법이다. '함께 다 죽기'보다는 '다 같이 살자'는 측면에서 일단, 공존(共存)의 지혜가 읽혀진다.

<섭대승론>에서는 "인내는 자타(自他)의 평화를 낳는다"고 했다. 자신이 노여움에 더럽혀지지 않으면 자기를 평화롭게 하고, 분함과 원망을 갖지 않는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어렵게 한반도 비핵화의 깃발은 올라갔다. 이해관계가 달라도,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유지의 제도적 기틀을 다진 것이다. 기초가 야무지게 마련된 만큼, 6개국 모두가 다툼과 분쟁을 걷어내고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김철우(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불교에서 말하는 타력과 자력 신앙의 유래

담란의 "본원은 타력이다"서 비롯

최근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의 '자력과 타력'적 측면을 기사화 한 것을 읽었다.(542호, 9월 7일자 18면) 불교 수행에 있어서 자력신앙과 타력 신앙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별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불교 수행에서 타력으로 오해하기 쉬운 분야가 정토신앙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유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정토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담란대사(476-542)가 "부처님의 근본소원인 본원은 타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에 도작선사(562-642)와 선도대사(613-687)가 계승했다. 이를 일본에서 정토종을 개산한 호넨상인(法然上人 1133-1212)이 모방하여 "본원은 타력이다"라고 표현하고 그 제자인 신란성인(親鸞聖人1173-1262)도 사용했기에 일본 정토교에서는 "본원은 타력이다"라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다.

본원이란 법신불께서 중생제도를 위하여 법장보살이 되고 세자재왕불 앞에서 발원하여 210억이라는 정토에서 48가지의 본원을 선택한데서 비롯됐다. 법장보살이 '48선택보원'을 이루어 5겁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두고 중생을 제도하실 준비를 완료하여 아미타불이 된 것이다.

그러기에 본원이란 보신불인 아미타불께서 성취하신 부처님의 원력이지 자기가 수행이나 선행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담란대사가 "본원은 타력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자력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다.

7세기라고 하면 중국이나 한반도의 정토교가 대성황을 이룬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양국의 정토교의 발전양상은 다르다. 중국의 정토교는 담란대사로부터 <관무량수경>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도작선사를 거쳐 선도대사에 와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정토교는 자장율사의 <아미타경소>와 <아미타경의기>를 위시하여 원칙대사의 <무량수경소3>과 <아미타소> 그리고 원효대사의 저서로 <무량수경종요><무량수경소><아미타경소> 등외에 많은 정토교서가 있는데 대부분이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토교는 무량수경 중심으로 발전되어 원효 대사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다.

원효대사는 중국정토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없고 또한 본원에 대한 표현도 "본원은 자력이 아니다"라고만 표현했던 것이다. 일본의 정토교는 중국정토교를 모방하고 한반도 정토교의 영향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정토종의 개산자 호넹상인은 중국정토교의 <관무량수경>을 위주로 삼았으며 그 제자 신란성인은 한반도 정토교의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한 정토진종이다.

중국정토교에서 발생한 "본원은 타력이다"라는 표현이 일본 정토진종계에서는 메이지 시대에는 "절대타력"이라는 표현으로 쓰였고 소화시대에 와서는 '타력경'과 '자력경'으로 부처님경전을 분별하는 기괴한 현상이 나오기도 했다.

자력과 타력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근본발생'인 부처님 본원에 국한시키고 더 이상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경전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원력인 본원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진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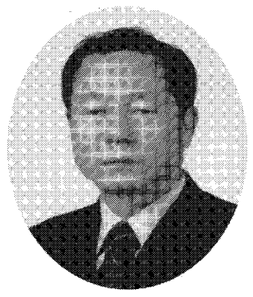
효란(오봉사 주지)

14면 상식 퍼즐 정답

자	장	율	사			
타			군	식	구	
카	누		자		석	
	비				기	도
	이					선
	불	가	사	의		율
				용	주	사

'현대' 만평 심 민 섭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지금까지 이런 선화는 없었다"

묵연스님의 선화 전시회 및 시화명상집 출판기념 사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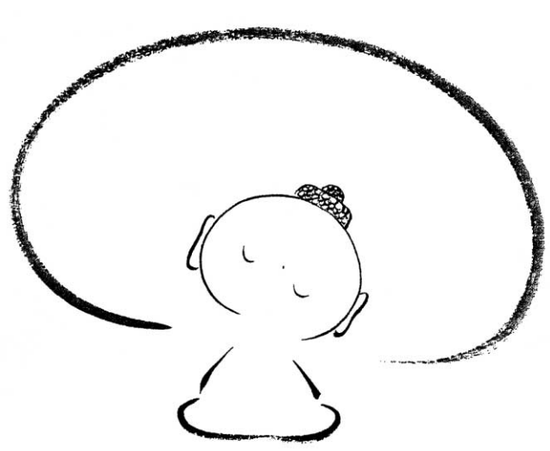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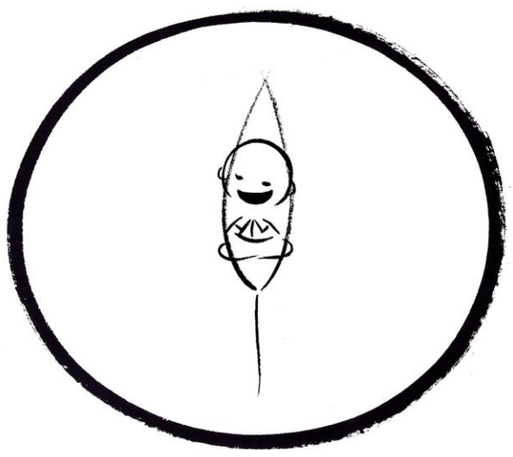
세계의 미술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독창적이고도
독보적인 선화의 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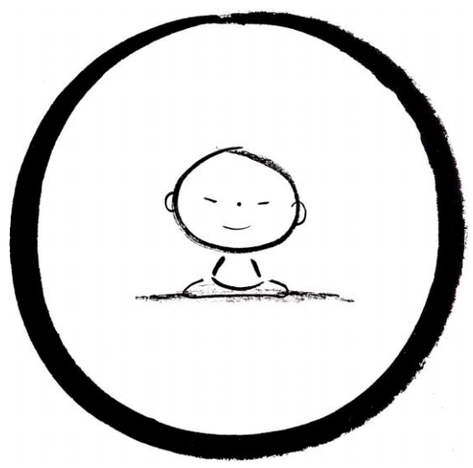




불교TV에 출연하여 선사님들의 선시와 세계의 명시들을 일상적 언어로 풀어내며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던 묵연스님이 이번에는 누구도 시도한 바 없는 독창적인 선화를 선보입니다.
붓으로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는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깨끗한 선의 흐름과 완벽에 가까운 일필휘지의 일원상은 당장에 세계미술시장에 진출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명작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과장이나 광고문구에 그치는 미사어구가 아니니 보시는 바와 같은 일원상은 모든 미술의 근본인 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기술이며 고도의 집중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작품입니다.
가장 절제된 단순한 선으로 고요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묵연스님의 선화는 작은 흔들림으로 인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선화의 진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길이 5cm 지름 8mm의 오직 한 붓으로만 선의 굵기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법은 붓이라고는 한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던 묵연스님이 2년이 채 되지도 않는 작품활동 기간에 스스로 터득한 오묘한 신필인 것입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한 과학자가 세계를 놀라게하고 그 과학자는 한국의 과학자이며 우리민족의 예술적 우수성은 분명 세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문화예술계의 후진성은 어서어서 털어버려야 할 지난 날의 가난과도 같은 그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정신적 사대주의로 문화 민족의 근간을 상실한 듯한 근대사를 직시하고 과학이 생명을 살리듯 문화예술이 생활의 행복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꽃같은 세계(世界一花)의 향기가 인류의 미소가 되어 번지게끔 하는 것은 세계경제 11위의 나라로써 미룰 수 없는 숙제인 것입니다.
시성 타고르의 기탄잘리는 정작 인도에서는 20년을 잠자다가 서양의 눈에 띄여 노벨상을 탄 뒤에야 그의 고국이 찬사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묵연스님의 선화는 그러한 전철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요! 아름다운 당신을 초대합니다!!







- 장소 : **갤러리 라메르 3층 전관**
  (인사동 사거리에서 공평아트 방향 중간에 위치)
- 일시 : **2005년 10월 5일 오후 2시**
  ~ 10월 11일 오전 12시까지
- 행사 : **10월 5일 오후 3시 묵연스님 시화명상집 사인회**
- 문의 : **011-9366-1129 / 02)730-5454**

※오픈당일 갤러리를 찾는 분들께는 묵연스님의 선화 달력(2005년)과 아름다운 명상음악가 홍순지님의 CD 1집과 2집을 무료로 선물합니다.

※ 화환과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